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최광수/기자



경북소방, 2023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 성료

25개 소방기관, 한울원자력본부 등 31개 외부기관 참여 풍성한 행사 황금연휴 아이들에게 안전교육 체험과 즐거움 동시에 제공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경북도청 천년숲 일원에서 개최한 '2023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회 행사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는 3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번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경북 관내 소방서 등 소방기관 25개소와 포스코, 삼성, 한울원자력본부 등 외부 3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숲속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 보건안전 등 8개 유형 50여 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인명 구조 훈련 시범, 어울림 버블쇼 등 공연행사와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 소방안전 OX퀴즈 대회와 같은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119 포토존', '소방퍼레이드', 천년숲 황톳길을 활용한 '건강걷기 재난안전퀴즈' 등 새로운 공연과 참여 행사가 진행되어 지난해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선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해 안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생성형 AI에서 더 발전된 선행적 AI 시대 연다 삼성전자, 미국 실리콘밸리서 '삼성 시스템 LSI테크 데이 2023' 개최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미주총괄(Device Solutions America office)에서 '삼성 시스템 LSI 테크 데이 2023'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초연결성(Hyper-Connected)·초데이터(Hyper-Data)를 가능하게 할 주요 응용처별 최신 반도체 설계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파트너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글로벌 전문가, 석학들과 함께 생성형 AI·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박용인 사장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생성형 AI'가 올해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더 고도화된 기반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고성능 IP부터 장단거리 통신 솔루션, 인간의 오감을 모방한 센서 기반 '시스템LSI 휴머노이드(System LSI Humanoid)'를 구현해나가며 생성형 AI에서 더 발전된 '선행적 AI(Proactive AI)' 시대를 열 것이다"고 밝혔다.

1. 최신 그래픽과 생성형 AI 기술로 사용자 경험 극대화한 엑시노스 2400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최신 아키텍처 RDNA3 기반 엑스클립스 940(Xclipse 940)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Exynos) 2400'을 공개했다.

'엑시노스 2400'은 전작인 '엑시노스 2200' 대비 CPU 성능은 1.7배, AI 성능은 지난 2년간 14.7배 대폭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더욱 향상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함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 리플렉션/셰도우 렌더링(Reflection/Shadow Rendering) 등 다양한 첨단 그래픽 기술을 탑재해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할 계획이다.

*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물체에 투과, 굴절,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기술

* 글로벌 일루미네이션(Global Illumination): 직접광, 간접광 포함한 자연광처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까지 고려하여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한 그래픽스 기법

* 리플렉션/셰도우 렌더링(Reflection/Shadow Rendering): 빛의 반사효과, 그림자 경계를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법

또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을 레

퍼런스 기기에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에 적용될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도 선보였다.

2. 초연결시대를 향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경쟁력 선배

삼성전자는 이날 엑시노스 오토(Exynos Auto)·아이소셀 오토(SOCELL Auto)·아이소셀 비전(SOCELL Vizion) 등 다양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제품 기술을 시연해 고객사와 파트너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2억 화소 이미지센서 기반 초고해상도 특수 중 기술인 '줌 애니플레이스(Zoom Anyplace)'를 처음 공개했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 폴스 크린과 최대 4배 클로즈업 장면까지 화질 저하없이 동시에 촬영할 수 있고, 클로즈업시 AI 기술로 사물을 자동 추적할 수 있어 모바일 사용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카메라 줌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 구동 영상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Arm의 최신 전장용 중앙처리장치(CPU) 코어텍스-A78AE 10개를 기반으로 이전 제품 대비 1.7배 강화된 CPU 성능과 최대 6개의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동시 연결 가능한 멀티 커넥티비티 기능으로 스마트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차량용 이미지센서용 '아이소셀 오토'와 사물의 빠른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포착 가능한 '아이소셀 비전' 제품을 통해 안전 주행 기술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아이소셀 오토 1H1'은 다양한 주행, 조도 환경에서 도로와 사물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120dB HDR을 지원하고, 신호등의 깜빡임 현상 등 'LED 플리커(LED Flicker)'를 완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운전자에게 최고의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차량용 핵심반도체를 통해 전장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삼/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동해안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

2024년 예산편성 대비 주요사업 현장 확인 및 동해안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6일 양일간 영덕, 포항 지역 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첫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결특위 현지 확인은 2024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어항시설, 어촌활력증진 사업장 및 축도시장을 방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및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촌 활성화와 수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해 수산분야 사업현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했다.

이날 황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산항 어항시설과 금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 고충 극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맑은 바다와 해송이 어우러진 영덕 고래볼 국민여영장에서 지난 7일 개최된 「경북 국제 Hi-Wellness 의로관광페스타」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 관광지와 동해안 업체유연구 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생현장을 정확히 담아내려는 노력이 중요 하다며”, “어민들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예결산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나서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천미경 의원은 “가족돌봄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소할 과제”라며 “울산시가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연령을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조례안은 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사례까지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청년들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지역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들이 겪는 학업·진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이런 고심의 결과를 이번 조례안에 담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5일 한 언론보도에서 관련 조례를 울산시는 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천 의원이 이미 제정 검토작업에 착수하여 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여 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하병문 부의장, 하중도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현장확인 나서

지방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대구시의 추진전략, 시정질문 펼쳐



대구시의회 하병문 부의장은 지난 5일(목) 하중도를 방문해 대구정원박람회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강 일원의 하중도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 환경으로 유채꽃밭과 청보리밭 등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충분한 생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는 13일(금), 하중도에서 개최되는 대구정원박람회는 금호강 일원이 지방정원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병문 부의장은 시의원 선출 이후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하중도가 가진 환경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체계

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병문 부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대구 대표정원이 될 하중도의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일(목)에 개최되는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원환경 유지를 위한 홍수대비책,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단계별 계획,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을 상세하게 짚어 봤다.

정원박람회 현장을 면밀히 살펴본 하병문 부의장은 “하중도는 대구시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으로 잘 가꿔나간다면 대구의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며, “하중도와 함께 달성습지, 안심습지를 하루빨리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암산 발전연구회』비교견학 진행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 의원연구단체 『연암산 발전연구회』는 지난 6일(금), 경북도청신도시에 위치한 범우리공원숲속놀이터를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진행했다.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신도시에 위치한 범우리공원숲속놀이터는 지역주민들이 자랑하는 착한 녹지로서 여가선용과 힐링지리 각광받고 있는 도심형 숲 체험 공간이며, 연암산의 환경과 매우 유사하여 비교 견학 장소로 선정했다.

『연암산 발전연구회』는 이성근 대표의원 및 서상용 의원, 김상현 의원, 김순란 의원, 오영준 의원, 이현수 의원, 한상열 의원, 임수환 의원 총 8명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주)리서치민트의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범우리공원숲속놀이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공

모에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도심 속 놀이터와는 차별화된 곳으로 소나무 숲 사이에 목재로 만들어진 짙라인과 같은 놀이 시설물과 솔방울·송진 놀이 등 자연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비교견학에 참석한 의원들은 숲속놀이 시설과 산책로, 휴게시설, 진입로 등을 살펴보고 편안한 산책이 가능한 지형으로 고령층의 접근도 쉬운 점이 연암산과 유사점이 많이 있어 범우리공원 숲속놀이터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 사업을 비교 검토하고 연암산 도심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

이성근 대표의원은 “연암산 도심공원의 내실 있는 개발과 도시민들이 즐겨찾는 연암산이 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발전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초청

김 의장,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한 돈독한 관계 유지 기대”

수원특례시의회의는 지난 8일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을 방문한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해 환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기정 의정,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재준 시장 및 5개국 8개 도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햇님 달님 어린이 병찬단, 라 클라세(La Classe)의 특별한 공연을 시작으로 환송사 및 답사, 기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자매도시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수원을 대표하는 수원화성문화제가 대표단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라며,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이 더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는 국제자매(우호)도시인 5개국 6개 도시 대표단과의 환담을 통해 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자매도시 간 화합과 우호 증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원을 방문한 국제자매(우호)도시대표단은 일본의 아사히카와·사이타마, 중국의 지난·주하이·항저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베트남의 하이즈엉, 캄보디아의 시엠렘 등 5개국 8개 도시이다.

김범상/기자



청송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 26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심상후 의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등 총 10건을 처리한다.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제안 설명에 이어, 11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는 통

과한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의결이 이뤄진다.

권태준 의장은 “군민의 고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높은 수준의 정책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석경 청소년보호책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과 환상의 축제로 초대Hat!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경북도·상주시 주최, 시 축제추진위원회·한국한복진흥원 주관 전국 최초 모자축제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대표, 경연·공연, 참여·체험, 부대프로그램 등 구성
 강영석 상주시장, "역사의 도시 상주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상주시민과 세계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세계 1위의 모자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중에서도 면적이 전국의 시·군·구 중 6위, 경상북도에서 안동·경주시 다음으로 넓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모자' 축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를하여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이다.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오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와 한국한복진흥원이 주관해 실시되는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콘셉트의 축제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주시는 막바지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 처음 만나는 '모자' 축제... 만반의 준비 갖춰

그동안 상주시는 '모자'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함께 다채로운 K-문화가 녹아 있는 축제를 선보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왔다.

그 시작으로 상주시는 지난 2월 20일(월) 11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추진위원 12명, 신규위원 10명, 당면전 6명으로 편성된 축제추진회의에서 신규위원 위촉과 강영석 상주시장님과 윤재웅 축제추진위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축제추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문화 및 고도화시켰으며, 총감독과의 합동 회의를 통해 국도비 사업 관련 추진 및 전체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12일(수) 10시에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축제추진위원회는 강영석 상주시장, 윤재웅 축제위원장, 추진위원(14명), 자원위원(6명), 당면전(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고 세계모자를 소재로 한 2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소정의 상금을 내건 모자페스티벌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강영석 시장의 KBO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시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이벤트 광장에서 상주지역 국악단의 공연 등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읍·면·동 실무자 회의를 갖고 특색있는 읍면동

부스 및 먹거리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새롭고 과감한 시도로 상주의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인 '명주'에 대한 관심 유도와 함께 우리나라 모자 생산의 우수성과 '문화도시 상주'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기 위한 준비와 홍보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새로운 경험, 풍성한 이벤트... 꿈과 환상의 축제

'꿈과 환상의 세계! 상주로 오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새로운 변화와 다각적인 시도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주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대표 프로그램, ▲경연·공연 프로그램, ▲참여·체험 프로그램, ▲부대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전통모자와 세계 70개국 이상의 전통모자, 셀럽모자 등을 전시하는 '세계모자전시관'과 '모돌이 도전 Hat'이 있다. 특히 '모돌이 도전 Hat'은 25명 정도의 사람이 모자를 돌려쓰며 게임을 즐기는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특허출원 예정에 있다.

◆다음으로 경연·공연프로그램으로는 모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퍼포먼스인 세계모자 프린지페스티벌, 모자를 공연 소품으로 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자댄스 경연대회, 각 읍·면·동 장기자랑 및 상주시민가요제 등 시민어울마당 등이 마련된다. 또한 다양한 지역예술공연들이 합세하여 야와 행사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꾸려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장식 및 제작하는 체험부스 '만들지 모', 모자나라 키즈랜드, 다양한 모자 코스튬 체험 포토존인 추억Hat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은 세계 모자와 관련된 이색적인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대프로그램으로 상주세계모자쇼, 특산물 판매장, 활쏘기, 전통다례 체험장, 플라마켓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를 곳곳에 마련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고, 축제장 곳곳의 퍼포머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나, 이번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축제의 흥을 한껏 높여줄 손태진, 양지은,

김용임, 이찬원 등 초대 가수 공연도 마련돼 있다.

한편, 세계모자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곳 상주축제장에서는 제11회 상주전국한우축제가 함께 열리며, 같은 기간에 이곳 상주시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이 기간에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맘껏 축제를 즐길수 있는 눈요깃거리가 차도도 넘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 'K-컬처'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 만들기

이번에 상주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세계모자페스티벌'은 이미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축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뜨겁다.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이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등의 이벤트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것이다.

상주시는 모자를 주제로 한 특색있는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통해 'K-컬처'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상주의 축제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축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이다.

또한 예술과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주의 대표 축제로 도약하는 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재웅 축제추진위원장은 "예부터 상주는 대표 문화유산 중 명주산업 활성화와 한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한복진흥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은 옷과 관련이 깊고 갖춰 입던 예의민족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를 '모자의 나라'부를 정도로 모자를 명예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겨 왔다. 지금 전 세계 모자 생산/시장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 모자를 주제로 한 독특한 콘텐츠를 통해 K-컬처 세계화·한류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자 축제를 기획하게 됐으니 많이 오셔서 맘껏 힐링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꿈과 환상의 세계인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축제가 이곳 역사의 도시 상주에서 펼쳐지게 돼, 시장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면서, 이번 축제가 우리 상주시민과 전세계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상

주시는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홍보 및 각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지난 25일, 지역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 순환(셔틀)버스 운영을 제도화해, 이를 통해 시 축제추진위원회는 상주 시내를 45인승 전세버스로 3개 노선을 운영하는 무료 순환(셔틀)버스를 도입해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오후 11시까지 3개 노선으로 ▶1노선(상주시민운동장-축제장 경유-상주일반산업단지(대형버스 주차구역)까지), ▶2노선(명지3차아파트-상주종합버스터미널-무양동 천년나무아파트 등 경유 축제장), ▶3노선(경북대 상주캠퍼스-시정삼거리(상영초 앞)-상주여고 방면 축제장 입구까지)을 운영한다. 또 단체 방문객 편의를 위해 상주일반산업단지(상주시 현신동 232-6 일원)를 대형버스 주차구역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축제장 주변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므로 자가용 보다는 가급적 무료 순환(셔틀)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대형버스의 경우 축제장 입구(상주시 북동동 180-9번지)에 정차후, 대형버스 주차구역(상주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232-6 일원)에 주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시에서 펼쳐지는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전국 최초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상주시는 최소 만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은 물론, 세계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점쳐져 상주시는 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엄청난 부가가치로 이어져, 벌써부터 이번 2023세계 상주모자페스티벌이 대박성공축제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라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2023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찾아 와 아름다운 꿈의 향연에 동참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으리라....오는 10월 13~15일은 상주세계모자축제장에서"

김동현/기자



경북의 향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일시 2023. 10. 13. (금) - 10. 15. (일) 장소 상주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with 제11회 상주전국한우축제

손태진 (10.13(금)) | 양지은 (10.14(토)) | 김용임 (10.14(토)) | 이찬원 (10.15(일))

꿈과 환상의 세계! 상주로 오세요!

주최 경상북도 | 상주시 | 주관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 | 한국한복진흥원 | 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NH농협은행 상주시지부 | DGB대구은행상주점 | 동천수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셔틀버스 노선 안내

이용요금 무료 | 운영기간 10.13~10.15(화요일) | 운영시간 09:00~23:00

1. 2노선 (시민운동장 - 현신동일반산업단지) | 2. 3노선 (경북대 상주캠퍼스 - 시정삼거리) | 3. 3노선 (시정삼거리 - 경안역) | 4. 3노선 (경안역 - 현신동일반산업단지)

구분	종별	출발	도착	종류
1. 2노선 (시민운동장 - 현신동일반산업단지)	10.13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10.14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2. 3노선 (경북대 상주캠퍼스 - 시정삼거리)	10.13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10.14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3. 3노선 (경안역 - 현신동일반산업단지)	10.13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10.14	09:30	09:30	출발
		10:30	10:30	도착
		11:30	11:30	출발
		12:30	12:30	도착
		13:30	13:30	출발
		14:30	14:30	도착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수원시,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 한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9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화려했던 60회 수원화성문화제의 막은 여기서 내리지만, 시민을 빛나게 할 수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위대한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과 함께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수원시립합창단의 공연, 수원시립합창단과 수원시청소년합창단·수원여성합창단·수원시여성실

버합창단 등 12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수원시민합창단'이 함께하는 시민대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시민들과 함께 '수원의 노래'와 '붉은 노을' 등을 불렀다.

수원시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경기도청의 신축 기공식이 열린 1964년 10월 15일을 '수원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그해에 수원화성문화제의 전신인 제1회 화성문화제를 개최했다. 이후 1996년 수원화성이 준공된 날(199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10월 10일)로 환산해 수원시민의 날을 10월 10일로 변경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 되새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한글날 경축

10월 9일 한글날 맞아 SNS에 경축 메시지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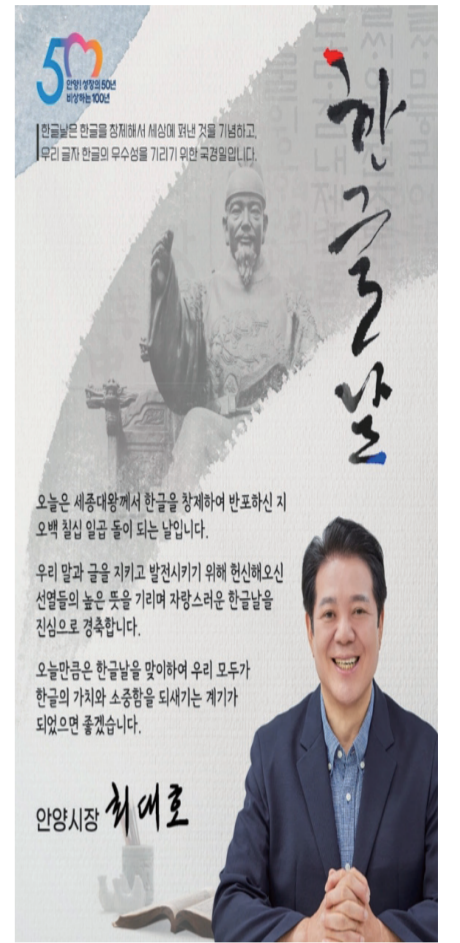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제577돌 한글날 경축사'를 통해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자랑스러운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문화유산 중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많은 이들이 한글을 꼽을 것"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지를 표했다.

최 시장은 "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는냐에 있다"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말씀을 언급하며 "오늘만큼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이와 함께 "한글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은 백성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충우 여주시장, 벼 추곡수매 현장방문

수매농협 관계자 격려 및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추곡 수매 기간을 맞아 관내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해 관련 농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왕늪표 여주쌀 생산 농사에 땀 흘린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여주시장은 10월 6일 관내 농업 협회 미곡처리장(홍천)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기상이변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수확기의 강우로 도복된 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또한 최근 쌀값 동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수매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이지만 농민, 농협, 행정의 합심하여 명품 여주쌀의 명성을 이어나가

자"고 말하고, 수매농협 관계자들에게는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충우 시장은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여주쌀 맞춤형 비료, 토양개량제,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쌀값 안정과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부문 수상



책을 시민 참여 기반으로 추진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자치 발전 대상 수상은 단체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게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속의예산', '청년동 사업'을 비롯해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5개 시장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현장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신설해 '우리동네 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생생소통현장', '시민소통의 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500인 시민원탁회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세 마을사업' 등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 시민 참여와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고양특례시, 도로건설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관 관계자는 "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은 시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하남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돕는다... '맞춤형 금융교육' 진행

하남시가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와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 청년해법센터(미사강변대로 84)에서 이달 23:25: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3일에 걸쳐 경제 분석과 금융투자법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선착순 마감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은 투자법·재무설계 등 2030세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한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

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천455만원으로, 2012년 3천405만원과 비교해 2.48배 증가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 심화, 부동산 투자 열풍 등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상징되는 투자열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채증가 현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위한 경제 읽기(23일) ▲2030 금융투자 A to Z(1)(25일) ▲2030 금융투자 A

to Z(2)(27일) 등 강의를 3차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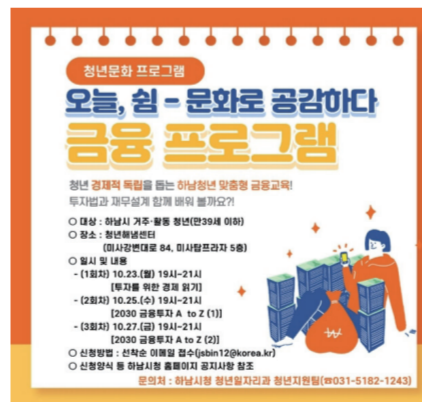
세부 강의 내용을 보면 첫날인 23일에는 '투자를 위한 경제 읽기'를 주제로 과거 금융위기 사례 분석을 통해 자산별 특징들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

이어 25일과 27일에는 '2030 금융투자 A to Z'를 주제로 2회에 걸쳐 금융투자자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강의가 열린다. 이날 청년 참가자들은 '적립식과 거치식 투자의 이해', '금융투자 계좌에 대한 활용법' 등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및 1인 가구 청년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독립을 돕고자 금융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주거·결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후보자 모집

광주시는 지역 도예문화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장인정신이 투철한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은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1명이다.

자격조건은 광주시에 2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도예산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서식을 출력해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함께 광주시청 체육관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로 진행되며 공정성을 위해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입상 및 전시활동 경력, 전문성, 도예문화 발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으로 선발된 자는 명장 증서가 수여 되고 선정 연도에 연구활동비 및 전시지원비를 받게 되며 도자 관련 행사 참여시 초청자로 선

정 등 예우를 받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선정에 많은 도예인의 참여를 기대하며 명장 선정으로 조선백자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공무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화성시가 지난 6일 YBM연수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한국사회 내 이주배경을 지닌 주민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사회 및 문화다양성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내 갈등 감소에 기여하고 공존과 조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아시아인권문화재단 대표가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문화 다양성을 통해 더 행복한 한국에 대해 강연했고, 네팔 방송인 수잔 사키야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직접 겪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다문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공직자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을 매년 추진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 경제·사회문화적 사회통합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존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써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은 "화성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선행적으로 개선해, 100만 희망화성에 걸맞은 적극행정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

2023 경기도무형문화재 학술세미나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6일 광명문화원에서 경기도,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2023 경기도무형문화재 학술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영근 전 이화여대 음대학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시대적 요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위원, 주제권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안태욱 한국문화재단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보존·전승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호 의원은 "무형의 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



했을 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무형문화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홍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무형문화재 지정의 진

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의원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과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효준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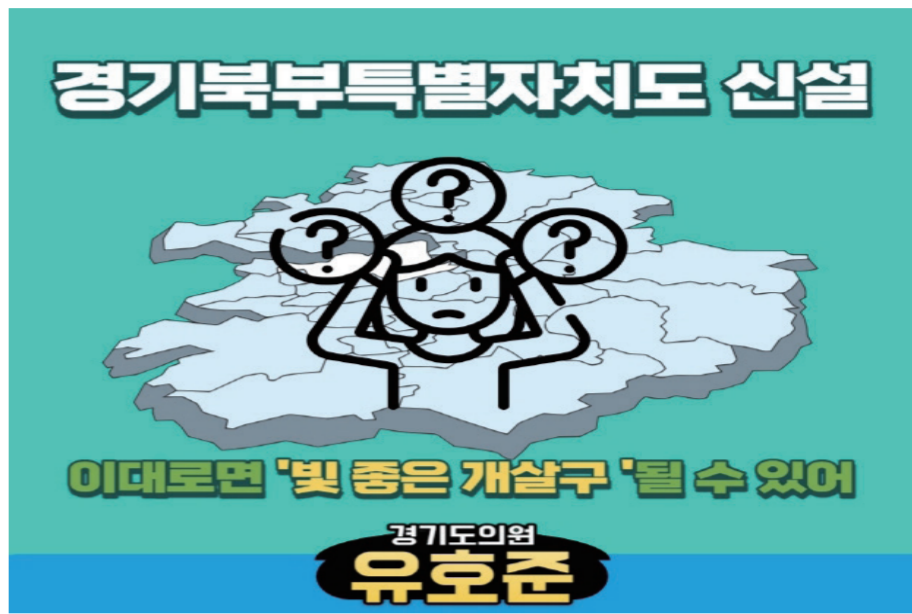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해제되는지 설명해야

경기도의회 유효준 의원(남양주, 다산1,2동,양정동)이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기북부에 속하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효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 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권경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에 이은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규제 해제가 나와야 하는 것들이다. 유효준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 반문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됐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유효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같이 원안으로 관련 규제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관련 규제들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함께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



해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눠지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별이 적긴 해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라며 지적한 뒤,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

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한 뒤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눠지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별이 적긴 해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라며 지적한 뒤,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신미숙 의원 기획으로 진행된 토론회 성공적 마쳐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6일 화성시 중앙아파트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획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본 토론회의 좌장으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와 주제 발표를,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공고히 할 방안에 대해 그룹홈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과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잦은 주거 이동의 악영향, 아동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면적 확대의 적극 보장 필요, 그룹홈의 지역사회 환경 규정 범위를 확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보호 대상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제도상 한계 범위를 확대"를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출산율의 증가 정책 및 아동들의 육성 정책의 중요성, 그룹홈 주거시설도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 아동의 육아는 민·관의 힘이 필요하다"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은 "화성시의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 개선을 위한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입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별 월 임차료 일부 지원 촉구"를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룹홈 개인 운영시설의 협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공공성 강화 및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향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그룹홈 돌봄, 창업지원, 장애인 등 장애·비장애 지원 GH 지원 확대 요구"를 제안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는 "그룹홈 주거 세대의 높은 밀도, 성장기 아동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공간확보를 위한 LH 연립형 주택 추가 또는 같은 층 2개 이상



의 호수 사용"을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에 관여하여 한번 자리 잡은 그룹홈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전되지 않게 지원하고 지가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통합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질 높은 환경의 아이들이 생활권을 위해 추가 지원 요구, 수급비 조정, 국회·LH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범상/기자

“모두 와서 보고 확인하라!”

계시록전장 실상강의

하나님 6,000년 역사의 마지막, 인류 최고의 진리를 알리다!

이제 믿어 아무기 전에 너희에게 향한 빛은 믿어 있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29-

2,000년 전, 예수님 초림때도

오늘날, 예수님 재림때도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 송출

YouTube 신천지 말씀 대성회

일 시 2023. 10. 07 (토)
강의자 이만희 총회장

40년 목회자도 '성경적'이라고 인정한 신천지 서울 말씀 대성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천지 말씀 대성회가 다시 성사된 가운데, 서울에만 수많은 청중이 몰리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음을 입증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준비된 1500석을 가득 채우고도 서서 듣는 청중까지 있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방증했다. 참석자는 목회자 450여 명을 포함한 1600여 명에 달했다.

이날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강연자로 직접 나서 '계시록 전장 실상'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총회장은 요한계시록의 전장을 한 장씩 짚어가며 예언의 의미와 그 실체를 함께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계시록 22장 18~19절을 읽어보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다"며 "계시록을 통달하지 않고 가감했다면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이단이라 정할 것이 아니라, 신천지예수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비춰봤을 때 옳은지 그렇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회장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실수하거나, 임의로 성경 내용을 더하거나 빼선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적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 다수가 챙겨온 성경책을 보며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회장의 강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노트를 들고 필기하거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등 학구열을 보이는 목회자도 많았다.

포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모 목사는 "오늘 말씀대성회를 듣고 나니 '내가 비록 목사지만 말씀을 더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80대 원로 목회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통해 몰랐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밝히 아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40여 년간 목회 사역을 했다는 순복음교단의 한 목사는 이날 강연에 대해 "한 마디로 '성경적'이다. 신천지예수교회 말씀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다음에는 지인 목사들과 함께 오려 한다"고 전했다.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관계자는 "(이번 말씀 대성회는) 6000년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이자, 누구도 풀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인류 최고의 진리가 만방에 알려



김범상/기자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 개최, 글로벌시장 진출 힘 모은다

기아·에코프로·현대글로벌·에바사이클·경북도·경북TP 간 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MOU 경북도, 도내 이차전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강한 자신감 표출 獨 VDE 대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이차전지pd 등 경북 이차전지산업 정책방향 제언



경북도는 지난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도, 경주시, 포항시, 경북소재 산·학·연·관 기관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시 사전 행사로 기아·에코프로·현대글로벌·에바사이클·경상북도·경북TP 간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배터리 재활용 얼라이언스는 국내 최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원소재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아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과 폐배터리 공급을 담당하고, 에바사이클은 배터리 분해/해체 및 블랙파우더(Black Powder, 이하 BP) 제조, 에코프로는 BP 후처리에서 양극재 제조, 현대글로벌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성 검토, 경북도와 경북TP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 및 신사업 기술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재활용 공정으로 추출한 원소재들의 가치를 측정, 공정별 Data 수

집하고 분석해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해당 내용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MOU에 이어 독일 VDE 부카르트 홀더 대표이사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이 진행됐다.

1893년에 설립된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독일 전기기술협회)는 전기, 전자제품 및 각종 소비용품의 안전성 시험·인증 관련 유럽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홀더 대표이사는 "Global Energy Storage Market and Challenges"라는 주제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동향과 국내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차전지 글로벌 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상근부회장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이차전지pd는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에서 정부의 이차전지 정책 방향과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동향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을 좌장으로

기아 윤승규 국내 eBiz 솔루션 상무, 에코프로 정희림 경영전략실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이차전지pd,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경북의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북 이차전지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북도의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포항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배터리 원료·소재·리사이클링 산업생태계를 경북으로 확장하여 도내 각 시군의 특성과 강점에 기반한 경북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고도화를 확보하자는데 관계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차전지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미·중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며, "경북은 글로벌 초격차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2030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김주수 의성군수, "계절근로자 제도로 농가의 부족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

의성군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 등의 신청을 이달 27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이며 금년 82농가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에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내년도 사업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정 부어 기준 총족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지역으로" 영주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발표

박남서 시장,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시, 비혁신도시 영주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도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인구 유입 등 이뤄질 수 있는 기회 확대될 것"

경북 영주시는 지난 7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울진·영양·봉화)은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할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영주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입지 발굴 및 최적의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 비혁신도시 간 공동연대 등을 추진 및 계획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비혁신도시 중에서도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한정 될 것이 아니라 비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할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금자/기자



부산시, 아프리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확보 총력전 벌여

부산시, 4~6일,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회 등 주최 한·Africa 경제협력 컨퍼런스 참석해 안병윤 행정부시장 필두로 유치 교섭활동 펼쳐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등 행사 참석 아프리카 각국 대표자 면담,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 부산 매력과 역량 적극 알리

부산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2030 High-Level Conference on Korea-Africa Partnerships)'에 참석,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필두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는 국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주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아프리카 25개국, 그리고 아프리카 2개 기관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아프리카 주요국 대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마련 됐다.

먼저 현지 시각 5일,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윌리엄 루토 케냐대통령을 만나 케냐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음

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대한 민국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등 글로벌 과제 극복을 위한 비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제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장 주제 만찬 행사에서는 부산시립예술단이 풍류장고, 동래학춤, 부채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혹' 등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등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을 한껏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안 부시장은 컨퍼런스 기간 케냐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네이션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IT), 농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케냐와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다음 날인 6일, 국회의



장,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등과 컨퍼런스에 참석한 아프리카 각국 장관 등 대표자를 차례로 만나 개최 후보도시 부산에 대한 매력과 역량을 부각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은 "오는 11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

고 시와 정부는 모든 기관, 단체와 협력해 원팀으로 막바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번 교섭활동 뿐 아니라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섭·홍보활동을 펼쳐 반드시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앞으로도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발굴 사업 개발, 더 빨리 복지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

대구광역시는 동북지방통계청이 주관한 지자체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동북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자기진작을 목적으로 지자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전력 대구본부, 대성에너지(주), 상수도사업본부와 '위기정보 빅데이터 공동 활용 업

무협약식'을 갖고 공공요금 연체정보를 활용해 더 빨리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체계로, 협약에 따라 매월 2개월 이상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위기기반으로 2가지 이상 중복연체자를 찾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 긴급복지, 기초연금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단전·단수·단가스 정보를 격월로 보내오는 기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비해 최소 2개월 이상 신속히 위기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입수된 연체 정보를 위기기반으로 위기의 심가구를 발굴하고 있어 주민등록 여부

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연체정보 319,862건을 제공받아 이중 중복연체자를 추출해 12,170건의 복지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 357건, 긴급복지 243건, 기초연금 등 공공서비스 346건, 민간서비스 연계 1,391건, 정보안내 6,076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구광역시는 연말 통계청에서 열리는 전국 본선에 지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광역시는 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

데이터 활용사업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발굴 사업을 개발해 더 빨리 복지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 개최

예천군은 지난 6일 오후 2시, 도청 신도시에 행정·복지·문화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김학동 예천군수와 최병욱 예천군의회회장을 비롯한 초청 내빈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창단의 축하공연과 김학동 군수의 환영사 및 내빈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 건물 관람으로 진행됐다.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9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총사업비 361억을 투입해 경북도청 소재지인 호명면에 연면적 10,816㎡,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했으며 '23년 4월 준공, 8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주요시설로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호명면 주민자치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갖춰 행정서비스부터 건강 챙김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까지 제공한다.

경북 최초 행정복합건물인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 속 즐기는 공공 편의시설이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금자/기자



당신의 일상을 바꿔 줄 경북형 워케이션, 온라인에서 만나자!

경북형 워케이션 일심동체, 국내여행플랫폼 프리프와 협업 기획전 개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형 워케이션 기획전에 4개 지역 특별한 상품 구성, 깊어 가는 가을, 이 상품으로 자연 벗 삼아 일하면서 심도 쟁기길 바란다"고 밝혀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국내여행플랫폼 프리프와 협업해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고즈넉한 경북에서 일과 심을 온전히'라는 주제로 경북의 매력을 담은 4개 지역에서 가장 편안한 가격으로 만나는 경북형 워케이션, 일심동체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상품이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2박3일 기준 최저 7만 2천 원부터 이용가능한 상품부터 다양하게 준비했다. 또한, 상품 이용 시 워케이션 웰컴키트(안동 진맥소주(미니어처), 소주잔, 3in1 무선충전기, 경북 관광안내책자, 손거울 등)으로 구성)도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은 MZ세대 대상 국내 여행경험 서비스 플랫폼인 프리프(MZ세대 대상 국내 여행경험 서비스 플랫폼 <회원수 140만 명>)에서 경북형 워케이션 일심동체 상품 구매고객에게 선착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상품별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 상품에 따라 카페 음료 교환권, 굿즈, 야외방탈출 프로그램, 명선비 여행 등 다양한 선물과 체험여행상품을 준비했다.



워케이션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프리프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한 후 사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운영사에서 예약이 완료되면 상품을 이용하고, 추후 본인이 근무자나 프리랜서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나 명함 등을 제출하면 된다.

북에서 일과 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경북형 워케이션은 업무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관광상품으로, 지역소멸에 대비하고 관광수지가 증가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현재 포스텍 등 10개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북형 워케이션 사업을 홍보하고 워케이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팸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나드리와 프리프 홈페이지, 경북나드리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형 워케이션은 낮에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북의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이번 기획전에 4개 지역의 특별한 상품을 구성했으니 깊어 가는 가을, 일심동체 워케이션 상품으로 경북에서 자연을 벗 삼아 일하면서 심도 쟁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백일홍 만개한 산소카페 청송정원 관광객 '복적'

'배어난 리더십'이 가져 온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연일 관광객 발걸음 이어져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가 운영되는 마지막 날까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전국 최대 규모(약42,000평)의 백일홍 정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백일홍 꽃이 만개한 가운데, 추석연휴(9월 28일 ~ 10월 3일) 6일간, 3만 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5만 명이 다녀간 청송정원은 지난날 1일 개장에 현재까지 누적입장객 6만 명이 찾고 있는 청송군 대표 화원으로 '배어난 윤경희 청송군수의 리더십'이 가져 온 결과물로서 연일 관광객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청송정원은 7월 백일홍 파종을 시작으로 청송군새마을회 등 18개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곳으로,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는 청송군이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청송정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하였으며, 쉬면서 백일홍 꽃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의의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백일홍꽃과 함께 맨발로 걷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청송정원을 찾는 입장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경북합창제, 청송예술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긴 연휴기간 청송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단체가 함께 노력해 왔다."며,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가 운영되는 마지막 날까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영양향교 석전대제 봉행

오도창 영양군수, "이번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옛 성현들의 가르침과 예를 실천하고 후대에 널리 알려 우리 고유의 전통과 유교 정신을 계승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영양향교(전교 권경호)는 6일 석전대제를 영양향교 대성전에서 지역유림,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영양향교 석전대제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초헌관을 맡았으며, 아헌관에 권오순 유림, 중헌관에 조길 유림, 분헌관에 권기원, 박문경 유림, 대축에 김광현 유림, 집례에 오창락 유림, 해설 집례에는 작년에 이어 오창태 영양군청 농림관광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석전대제의 봉행은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관·아헌관·중헌관이 차례로 공자 등 오성(五聖)에게 술을 따르는 전작, 분헌관이 오성을 제외한 성현들에게 술을 올리는 분헌례에 이어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석전대제는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1986년 1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으며, 석전대제가 행해진 영양향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75호로 고려시대의 향학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시대부터 지방 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옛 성현들의 가르침과 예를 실천하고 후대에 널리 알려 우리 고유의 전통과 유교 정신을 계승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29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시민 화합한마당 성료

1,300명의 시민들과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 다짐

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의 희망찬 미래는 시민들 참여로 만들어 진다"

"통영이 가진 잠재력에 우리의 지혜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우통영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것"



통영시는 지난 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제29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해 성황리에 성료했다.

이 날 행사는 천영기 통영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자매도시, 재외향인, 각급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학생들로 구성된 제이킹팀의 식전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재외향인 감사패 수여,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아침광장 댄스팀이 마무리 공연을 펼쳤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읍면동

대합 줄다리기, 대형바통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한마당의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시민체육대회를 전로 경기종목 대신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오락종목으로 구성해 경쟁보다는 시민참여와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기념사에서 "통영의 희망찬 미래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진다"며 "통영이 가진 잠재력에 우리의 지혜와 열정이 더해진다면 우리 통영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군위군, 2023년 신규공무원 임용 간담회 개최

김진열 군수, "신규공무원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우리군이 발전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해

군위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규임용 공무원 29명과 가족 30여명을 초청해 2023년 신규공무원 임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신규공무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신규공무원들은 임용장을 수여 받고 공무원 선서를 낭독하였다. 또한, 가족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

고 일할 것을 다짐하며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한 신규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첫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 주어서 더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군위군 신규공무원들을 환영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신규공무원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우리군이 발전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동래소방서 사직119 안전센터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사직2동에 성금(품) 전달



부산 동래구 사직2동은 동래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및 의용소방대가 지난 달 2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직119 안전센터 직원과 남·여 의용소방대가 전달한 성금(쌀 10kg 4포, 라면 2박스, 과일 2박스, 휴지 2팩 50만원 상당)은 저소득 가정 14세대에 지원했으며, 김재은 의용소방대원은 개인적으로 성금 1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윤건 사직119 안전센터장은 "사직

119 안전센터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석을 맞아 마음을 모아 성금(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자 사직2동장은 "사직119 안전센터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격무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어 감사하다"며 "성금(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잘 전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희태/기자

울진군, '제8회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2년 연속 수상

손병복 군수, "앞으로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으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군민이 더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울진 건설에 전 공직자가 매진하겠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2023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JTBC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은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 경제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울진군은 연구기관 위주의 '청정수소 R&D 실증단지 유치'라는 기존의 방향성

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로 전략적 목표를 과감하게 전환,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 9개소와 MOU를 체결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국가산단 유치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데 최선 노력을 경주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라는 대규모 제조-생산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소비 중심의 지역 경제구조가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울진군은 극심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청정에너지 생산 허브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통해 넷제로 시대를 조기 달성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선두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동시에 산림·농업·어업의 대전환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제22회 산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 산림정책 심포지엄 열어 경북도, 신성장 동력으로 산림을 활용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박차



경북도는 지난 7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산림 유관기관·임업단체, 산림조합, 시·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UN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 '산의 날(매년 10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3 경상북도 산림박람회(10.6~8일)'와 함께 열려 경북 산림의 다양한 먹거리(청정 임산물), 볼거리(산림 홍보관), 즐길 거리(숲체험 프로그램)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기념식에서는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올해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교육생 중 77세 최고령 교육생과 17세 최연소 교육생이 함께 산림현장을 남북해 세대를 아우르는 숲 사랑 실천 다짐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또 경북 산림산업의 진흥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과 기관·단체에 '제13회 경상북도 산림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산림대상 개인 부문에서는 고품질 도라지 가공품 개발 및 생산으로 지역 임산업 발전과 도라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영미속(서가농업회사법인(주)대표)씨, 단체 부문에서는 숲해설기 양성으로 산림일자리 창출과 숲힐링 프로그램 운영, 경북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개최 등 산림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경

상북도숲해설가협회(대표 김영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오후 개최한 경북 산림정책 심포지엄은 도내 산림분야 대학교수가 중심이 된 (사)경북산림포럼이 진행했다. ▲변화하는 환경과 경북지역 산림 보존: 소나무림을 중심으로(경북대 오승환 교수) ▲라이프 프로젝트 숲: 새로운 도전(영남대 이주형 교수) ▲산사태에 강한 숲 조성: 이론적 고찰(대구대 김동영 교수) ▲대구·경북 수목의 피해 진단 사례(경북대 김기우 교수) 등 4개 색션의 주제 발표와 경북의 미래 산림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도는 전국 1위의 넓은 사유림과 많은 임가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산림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산림을 활용해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산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금정구 서3동 주민자치위원회, '니캉! 내캉! ESG GROUND' 개최

부산시 금정구 서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서동 예술창작공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ESG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특화 사업 '니캉! 내캉! ESG GROUND'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주민이 필요로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모형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3동은 주민에게 생소한 ESG 경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본 행사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을 주민이 직접 시행해 보는 기회 마련을 위해 시행됐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주)에코

엔니야와 우리동네 ESG 센터가 참여하는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나눔장터는 미사용 물품을 판매하며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고, 전시·체험 부스는 관내 업체에서 제작한 폐자원을 활용한 물품과 친환경 제품을 전시하고 방문자가 직접 폐자원을 분해하거나 친환경 물품을 만드는 기회가 됨으로써 자원순환에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귀환 위원장은 "최근 공공부문 경영에 ESG 가치를 도입하는 추세인데, 주민자치회 운영도 ESG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해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D-50,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부산에 유치해!

부산시는 지난 9일, 롯데디자인츠와 LG트윈스의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D-50일을 맞아 이색적인 유치 응원전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D-50일을 맞아 전국적 유치 열기를 고조 시켜, 개최권 발표가 있을 11월 말까지 유치 지지 분위기를 계속 잇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특히, 인기 가수 추(CHUU)의 유치결정 D-50 응원영상도 이날 2030부산세계박람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우선, 경기장 223구역(15~16열)일부 공간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수도권대학생 서포터즈가 직접 준비한 유치응원 카드섹션을 선보이며 유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20명이 직접 기획, 디자인한 응원 문구 'D-50, 세계박람회 개최하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for EXPO)'이 담긴 카드섹션으로 범국민적 유치 열정과 진정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다음으로, 프로야구 방송중계 채널(KBSN)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특히, 황금연휴를 맞아 야구 경기장을 찾은 많은 시민이 하나가 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생

생한 현장을 프로야구 방송중계(KBSN) 채널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롯데디자인츠 치어리더 응원단도 현장 관광객과 함께 소풍, ▲엑스포 송 '킵 고잉(Keep Going)' 댄스타임 ▲'2030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유치구호 제창 ▲유치 지원 파도타기 등으로 구성된 유치응원전을 펼친다. 이 치어리더 응원단은 '부산 엑스포 킵 고잉(BUSAN EXPO KEEP GOING)' 티셔츠를 입고 엑스포 송 '킵 고잉(Keep Going)'에 맞춰 그간 연습해온 단체 댄스타임을 이날 처음으로 선보인다.

응원단장 지휘 아래 현장 관광객과 함께 유치 염원을 담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구호를 외쳐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또 야구장의 대표 응원문화를 활용 '유치지원' 파도타기로 전 국민이 돼 신나는 응원전을 펼친다.

특히, 유치 결정 D-50일, 치러지는 야구경기는 탄탄한 팬덤(fandom)을 보유한 롯데디자인츠와 올해 정규시즌에 우승한 LG트윈스의 경기라 시청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이번 홍보가 전국적 유치 불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만의 지역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국가사업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홍보 장소도 부산이



안인 수도권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유치 결정 D-50을 맞아 스페셜 퀴즈 이벤트도 추진한다. 'Busan is good for(****)' 문장의 괄호 안 별표를 네 단어로 표현 정답을 올리면 추첨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도시인 부산의 도시슬로건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은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국경일인 한글날이자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발표 50일 앞둔 특별한 날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간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응원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찬

지지로 오늘 이 자리 까지 올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 대한민국 최초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개최국이 되는 투런 홈런(two run homerun)의 순간을 맞고 싶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시는 11월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지향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전국체전 역대 최대규모 선수단 출전, 종합 9위 목표!

대구광역시는 지난 6일(금), 오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역대 최대규모인 1,57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키는 대구광역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강은희 교육감,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회장, 학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단기 수어, 단복 착용식, 필승결의 선서, 선전 기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종합체육대회로 대구시는 49개 종목에 1,57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2년 연속 종합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17개 시·도와 경쟁하게 된다.

특히, 작년 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맹활약한 '대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수영의 이호준·지유찬과 롤러의 최광호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테니스의 장수정은 3연패에 도전하고, 자전거의 신지은은 다관왕으로 점쳐진다.

또한, 역대 권대회(대구체고), 양궁 서민기(계명대) 등도 기대주이며, 올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남자고등부 야구(상원고)도 강세다.

윤근수/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 88만명 관광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 내려

권기창 시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돋보인 축제의 장' 만들어

축제 공간 확장하고 콘텐츠 확충, 새로운 도전과 변화 내디뎠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확인

권기창 시장, "재미와 감동을 주는 축제 콘텐츠와 최적의 축제 시설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매력을 가진 축제로 성장기 위해 최선 노력 경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이 탈과 탈춤을 통한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어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여드레간 옛 안동역사 일대에서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8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축제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이 돋보인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축제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안동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나아가, 본격적인 글로벌 축제로의 희망과 함께 중장기적 속제도 남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산으로 등재된 이후 열린 첫 축제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대대적인 참여 속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주목받았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축제 장소의 확장이다. 올해 축제의 공간은 메인 행사장이 옛 안동역사를 중심으로 두고 남쪽으로 탈춤공원, 북쪽으로 원도심과 웅부공원을 배치했다. 옛 안동역과 탈춤공원을 잇는 보행로도 연결해 옛 안동역이 단절의 장소에서 시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올해 축제는 하회마을 강신, 거리 퍼레이드, 개막식 행사로 축제의 대장정을 알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탈춤공연과 대동난장,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등은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역 예술공연자들이 카페, 식당 등에서 관광객과 이벤트를 펼치며 어우러지고, 탈춤공연장 입장권을 쿠폰으로

들려주는페이백시스템도 도입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웅부공원에서는 세계탈전시와 메타버스 체험관이 설치되어 발걸음이 이끌고, 문화공연에서는 Autumn vibe 등 문화예술공연이 열려 힐링의 시간을 안겼다. 또한, 모디684 광장에도 다양한 버스킹 공연 등이 개최돼 원도심과 축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신명을 더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7개 한국의 탈춤과 제주민중극을 초청해 탈춤공연장과 하회마을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10개국 11개 단체에서 참가한 외국공연단은 탈춤공연장과 마당무대, 그리고 퍼레이드에 참가해 국제적 행사의 품격을 드높였다.

특히, 지역 내 대학생들이 구성된 탈놀이단은 축제 마스코트로서 '꽃눈개비'라는 이름으로 K-POP과 탈춤 댄스

를 선보이며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음식의 거리에서는 웅부객주로드페스티벌이, 구시장과 찜닭골목에서는 풍물시장이 운영되고, 중앙시장에서는 소소한 축제가, 옥동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축제의 열기를 도심 전역으로 전파했다.

민속축제와 완전히 분리된 올해 축제는 탈춤페스티벌만의 킬러 콘텐츠를 다수 운영했다. 이매를 찾아라, 탈 골든벨, 탈랜덤댄스플레이, 마스크 EDM 등 MZ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폭넓은 호응을 끌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주민자치 경연대회와 대동난장 경연대회는 지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면서 시민 대화합의 장을 이뤘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탈춤 축제'와 세계 3대 축제 '베니스 카니발'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서양의 탈 문화 축제가 교류협력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축제를 진행하면서 안동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들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축제 기간 중 매일 오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하지만, 지속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속제도 다수 발굴됐다. 특히, 유료로 운영되는 탈춤공연장은 관객 수가 줄었고 유네스코 '한국의 탈춤'공원의 대외적인 홍보와 저변확대도 필요할 실정이다. 또한, 안동역사 부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보완, 축제 공간배치 등



안동시 전체가 축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축제공간의 정비도 필요하다.

국제적인 축제로서 질적 성장도 이뤄야 한다. 축제 참가 공연단과 교류단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고, 축제장 편의시설과 안내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착용이 용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탈을 개발하고 지역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 탈춤 페스티벌과 관련한 학술대회와 포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과 시스템 등이 보완사항으로 도출됐다. 또한, 저탄소, 친

환경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축제로의 발전 과제로 남겨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의 애환이 서리고 만남과 이별의 장소였던 옛 안동역 부지를 80여 년 만에 축제의 공간으로 시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재미와 감동이 있는 축제 콘텐츠와 최적의 축제 시설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매력을 가진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10월, 호국지도 한 장 들고 경북으로 향하다

경북의 의병, 붓과 쟁기 대신 총칼 들고 나라 위해 일어서다
 경북 독립운동, 나라의 이름은 빼앗을지언정, 정신은 빼앗을 수 없다
 한국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최후의 보루 경상북도

10월은 국군의 날(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독도의 날(25일) 등 겨레가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의 며칠을 더 울리고, 그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날들이 유독 많은 달이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전국에 독립유공자 1만 7,848명 중 13.86%에 달하는 2,474명)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성지다. 또,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낙동강과 다부동은 위대한 만큼,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장소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다.

▲붓 대신 칼을, 쟁기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일어서다.

문경새재와 오미자로 잘 알려진 문경은 일제 강점기 의병 활동의 본거지로 유명한 곳이다. 군인 출신 의병장 이강년 선생은 정미의병(1907년~1910년) 당시, 제천과 단양 등지에서 일본군을 토벌한 공으로 13도창의군에서 호서창의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는 등 구한말 의병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분으로서 이 '운강이강년기념관'은 문경가운데에 있다. 그곳에 적혀있는 "너의 아버지는 평생 혈투(血鬪)를 품어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였다. 이제 뜻대로 되었으니 무슨 여한이 있으랴"라는 선생의 유언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본인의 삶을 하나의 모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내륙 최대 상업 도시 구미에서는 이강년 선생과 함께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왕산 허위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허위 선생은 구미 임은출신으로 1908년 13도창의군 군사장으로서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하였으나 패퇴했고, 그 후 일본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으로 순국하였다. 2009년 세워진 '왕산허위선생기념관'에는 작은 도서관이 함께 위치되어 평생 조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선생의 뜻을 잇고 있다.

영덕 고래볼 해수욕장에서 차로 8분여만 가면 의병장 신돌석 장군 유적지가 나온다. 이강년, 허위 선생이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였다면 신돌석 장군은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위세를 떨쳤다. 신돌석 장군은 을미년 이후 19세의 젊은 나이부터 항일운동을 펼쳤고, 활동 당시 신술귀멸한 전공으로 일본군은 그를 '태백산 호랑이'로 부르며 두려워했다. 31살의 이른 나이로 생을 마쳤지만, 그의 의병활동은 외세 침략 시

분 고하를 막론하고 들고 일어섰던 한민족의 기상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나라의 이름은 빼앗을지언정, 민족의 정신은 빼앗을 수 없다.

조선 유학의 중심지인 안동의 또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다. 인구 16만의 안동은 무려 391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진성 이씨, 의성 김씨 등 많은 가문은 가세를 팔아 독립자금을 만들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다.

안동시 임하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 이 기념관이 위치한 내암마을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수많은 안동출신 애국지사들이 이 마을로 피신해 들어와 독립운동을 펼치며 18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독립운동 마을이다. 더불어 안동지역 애국계몽운동의 산실인 협동학교가 처음 열린 곳이기도 하다.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으로 문을 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는 1894년 갑오의병부터 1945년 조국 광복 때까지 경북인들의 국내외 독립운동 내용과 상물이 전시돼 있다. 독립운동 영상을 상영하는 추강영상실, 유아를 위한 새싹교육실, 서바이벌 시설인 신희무관 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시설이다.

안동읍 안동에는 우리나라에서 살림집 중 가장 오래된 임청각이 있다. 임청각은 그 역사와 아름다움만큼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태어난 집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와 형제들은 일본에 나라가 빼앗긴 이듬해 임청각을 팔아 독립자금을 마련, 만주에 신희무관학교를 세우고 평생 독립에 헌신하였다. 일제는 1942년 불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집이라며 중앙선 철도를 건설하여 임청각의 50여 칸 행랑채와 부속 건물을 헐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상룡 선생과 그의 일가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낙동강을 타고 흐른다.

경상북도는 광복 후에도 조국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역할을 이어왔다. 한국전쟁 당시 3월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일 달 후인 7월 24일 대전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낙동강과 다부동 전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다부동 전투는

한미연합군이 55일간의 전투를 통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해 한 전투였다.

칠곡군 가산면에는 그 치열했던 전투를 기리기 위한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에는 당시의 무기들이 전시돼 있고,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음성지원 공간, 격전지였던 천평계곡, 466고지 등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최근,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 동상과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다부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최후의 성지였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칠곡군은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 13~15일까지 열린다.

다부동 전투가 북한군 남침을 저지하는 최후 보루였다면, 영덕에서 펼쳐졌던 장사상륙 작전은 북한군의 주의 분산과 보급로 차단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끈 숨은 1등 공신이었다. 특히 2주간의 짧은 훈련만을 거친 770여 명의 학도병을 태운 문산호는 전무한 전투 경험과 어려운 보급 여건 속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통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디딤돌이 됐다. 현재 장사리 해변에는 학도병들을 기리는 추모탑과 상륙작전 재현 동상 등 전승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혼들의 넋을 기리고 조국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랍 민족은 오래전부터 자신들 뿌리를 찾기 위해 작은 지도 한 장 들고 산과 들, 사막을 넘어 메카로 향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로마 시대 박해속에서 종교를 지켜냈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바탕 위에 만들어진 찬란한 문화와 영광을 되새긴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좋은 가을날, 우리도 지도 한 장 들고 호국의 성지인 경북도 이곳저곳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역사를 처음 배우나가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라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윤근수/기자



일정	장소	내용
10.13	영덕	10:30 - 12:00: 영덕군민운동장 12:00 - 13:00: 영덕군민운동장 13:00 - 14:00: 영덕군민운동장
10.14	영덕	10:30 - 12:00: 영덕군민운동장 12:00 - 13:00: 영덕군민운동장 13:00 - 14:00: 영덕군민운동장
10.15	영덕	10:30 - 12:00: 영덕군민운동장 12:00 - 13:00: 영덕군민운동장 13:00 - 14:00: 영덕군민운동장

독일마을 맥주축제, 가을 대표축제 '명불허전' 입증

콘텐츠 강화로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공간 구성, 빅텐트존 특색있는 운영으로 주무대 스피릿현상 완화 퍼레이드 장관 연출 마을 곳곳 띄씩...숲속 힐링 공연도 호평과 '쓰레기 없는 축제' 기조 이어가 쾌적한 환경 조성
 장충남 군수, "독일마을과 독일마을맥주축제는 남해군 큰 보물인 만큼 앞으로도 독일마을맥주축제가 10월 가을축제 대명사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독일마을의 공간 구성을 최대한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배치로 대한민국 가을 축제의 강자다운 면모를 이어나갔다.

특히 '한독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이해 독일출신 연예인 다니엘 린데만 초청 토크쇼를 비롯해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기본 콘셉트를 이어가면서도 관광객들과 군민 모두가 남해의 '마법 같은 가을'을 만끽하며 독일마을의 정체성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진 공간 구성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광장 주무대 구역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기가 가득했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광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 도입된 빅텐트 존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대형 무대와 다르게 좀 더 관중들과 가까이 호흡하는 이색공간을 연출했다. 특히 이전 축제 때는 지역시간대 조용했던 공간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숲속 공연장은 힐링과 소통의 공간이었다. '파독 광부·간호사 토크쇼'를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고, 작은 공연들과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퍼레이드 역시 장관이었다. 축제 첫날 대규모 퍼레이드 선두는 전통을 이어가며 오르코트 마차가 장식했고, 고적대, 마스코트, 마을주민, 공연팀, 버블카, 에어아바타가 뒤따랐다. 관광객들까지 합세, 독일마을 전체가 퍼레이드 행렬로 가득 차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둘째 날부터는 매일 2회 씩 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관광객들이 호응, 마을 전체가 띄씩거렸다.

부스 존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선보이며, 모든 부스에 의무적으로 메뉴와 가격을 표시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부스존 군데군데 쉼터를 조성해 맥주와 음식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우리 맥주잔 사용, 친환경 컵

사용으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이어갔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원순환보급금 관리센터에서 '1회용기류 보급금지 및 반용기반환' 캠페인을 진행해 친환경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역시 행사장 전역에서 진행했다.

이색적으로 에세이전문 월간지 <좋은생각>을 출판하는 '좋은생각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해, 좋은 생각 5천부를 현장에 나누며 훈훈함까지 더했다. 이는 <좋은생각>을 평소 나눔해 온 파독간호사 출신의 70대 구독자가, 남해군 독일마을을 방문했다가 깊은 인상을 받고 8천부를 나누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좋은생각사람들'이 호응해 2천부를 추가, 총 1만부를 남해군에 나누며 시작되었다.

올 축제는 3일간 총 5만 3600여 명이 독일마을을 방문했다. 대형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의 교통 소통 역시 원활했다는 평가다.

임지웅 독일마을맥주축제기획단장은 "기획단이 처음 구성돼, 축제를 준비했는데 성황리에 진행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정동양 독일마을운영회 회장은 "올해는 특히나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며 관광객들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다"고 밝혔다.

이유준/기자



봉화군, 가을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쯤쯤가무시증 조심하세요~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박현국 군수, "농작업/야외활동 후 물린자국 관찰되거나, 1~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증상시 쯤쯤가무시증 의심하고 즉시 의료기관 방문 신속 진단과 치료" 당부해

봉화군보건소는 가을철 농번기에 집중 발생하는 쯤쯤가무시증의 본격적인 호발기간(10월 중순~11월)이 도래함에 따라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쯤쯤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로 9~10월에 쯤쯤가무시균을 보유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하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한 알이 초가을에 부화를 시작해 늦가을(10월 말)에 개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착용,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외출 후 샤워하기, 휴대용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물린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3주 이내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쯤쯤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주 풍기인삼축제', 첫 황금연휴 관람객 '복적'...사흘간 14만 명 찾아

'2023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열리고 있는 풍기를 일원이 개막 첫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개막일인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14만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성황을 이뤘다. 축제 인기비결은 현장에서 저렴한 인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별 다양한 무료체험과 시식행사, 풍기인삼 산지봉인 품질인증제 시행과 다양한 할인행사 등 풍기인삼축제만의 건강이벤트는 인기몰이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산지 봉인 품질인증제도는 인기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 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인고'라는 풍기인삼'이라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홍삼가공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시험을 도입하고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협력업체에 대해 영주시장이 인증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장에서는 이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홍삼농축액, 엑기스, 절편, 홍삼수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알뜰쇼핑도 가능하다.

축제기간 중 시중가의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블랙프라이데이도 적극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풍기인삼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인삼요리도 만나볼 수 있다.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음식, 알싸한 맛의 인삼튀김 등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인삼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색다른 요리들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이번 풍기인삼축제는 관광객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과 개성 넘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풍기인삼 판매장, 매일매일 춤추며 이어지는 다양한 공연행사 등 하루 일정으로 머물기 아쉬울 만큼 빈틈없이 채워졌다.

정금자/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가을 맞아 스포츠대회 열기 후끈

윤경희 군수, "많은 체육인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 아울러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 다해



청송군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개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청송군민운동장 및 진보면테니스장에서 제18회 청송군수배 읍면 클럽 및 직장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오는 12일에는 청송군게이트볼장에서 제25회 청송군협회장이 게이트볼대회를, 13일에는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제14회 청송군수기 축구대회를 연이어서 개최한다.

또한 오는 주말인 15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약42,000평)의 백일홍 화원으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2023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도 열린다.

전국의 산악마라톤 동호인들이 청송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누비며 달리는 이번 대회는 산악하프, 10km, 5km, 청송정원 걷기 코스로 나눠 열리며, 4개 종목에 1,3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해 백일홍이 만개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출발해 태향산 임도로 이어지는 마라톤 코스를 함께 달릴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깊어가는 가을 청송은 각종 체육대회로 몹시 분주하다."며, "많은 체육인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고, 아울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여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대표단 경북도 방문

경북도-타이응우옌성, 경제·문화관광·인적자원 유치 등 교류 관련 논의



경북도는 지난 6일, 당 우안 쩡영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타이응우옌성의 교류 증진과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타이응우옌성은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해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스마트폰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삼성전기가 약 3조 원 가까이 투자해 대규모 생산 공장을 구축했고, 삼성전자도 2013년부터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해 2021년 누적 수출 7억 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해외 생산기지로 여겨지고 있다.

또 한국 기업에 의해 많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베트남 내에서도 한국 친화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와는 2005년 자매우호 관계를 구축해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문화·관광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 지역 간 경제 활성화 및 통상 확대를 비롯해 현재 경북도의 주요 이슈인 계절근로자 확보 등 인적 교류,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베트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 회복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꾸준히 교류해야 할 지역"이라며, "많은 경북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 금당야행 '살방살방 돌담길 밤마실' 성황리 마쳐

가을 경관과 고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

김학동 예천군수,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매년 발전하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예천군이 지난 7~8일 이틀간 개최한 '2023 금당야행'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3 금당야행은 '살방살방 돌담길 밤마실'을 주제로 천하명당 십승지 예천 금당살마을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가을 밤, 고택과 미로로 연결된 돌담길에 새겨진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며 전통혼례체험, 숲속음악회,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청사초롱만들기, MBTI·사주팔자, 달고나 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각종 체험을 포토미션으로 하고 미션을 완성한 관람객에게는 행사장 내에서 찍은 사진을 머그컵에 인화한 후 기념품으로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들녘, 청사초롱이 밝히는 돌담길과 고택, 야간 경관을 아끼자기하게 꾸며놓은 송림 등 자연과 고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매직버블쇼, 스토리텔링 공연 등을 즐기며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매년 발전하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다."며 "14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삼강문화단지에서 개최하는 <2023 삼강 낭만 나들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함께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덕 월월이청정보존회 정기발표회 선보여

예천 통명농요와 지역 전통문화 교류의 장 마련

김광열 영덕군수, "정기발표회를 통해 경북도와 영덕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영덕 월월이청청정이 더욱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혀

영덕 월월이청정보존회가 지난 6일, 영덕 군민운동장에서 정기발표회를 선보였다.

이번 정기발표회엔 2009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된 영덕 월월이청정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천 통명농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인상 깊은 공연으로 지역 간의 전통문화가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행사는 1부 영덕 월월이청청의 '경상도 아낙네들의 놀이 춤', 2부 예천 통명농요 '남정네들의 일소리', 3부 함께 어우러지는 '얼씨구나! 좋구나~ 돌아보세!'로 총 3부로 구성됐다.

정기발표회는 최수양 예능보유자가 영덕 월월이청청의 유래와 놀이 구성 등

을 해설하고 보존회원들이 일정한 가락과 즉흥적인 사설로 이뤄진 노래와 춤을 선보여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전승 활동도 가치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지역 간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도를 펼친 영덕 월월이청정보존회 63명의 회원 한분 한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한다"며, "이번 정기발표회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영덕 월월이청청정이 더욱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영양군, 제53회 영양군민체육대회 개최

오도창 군수,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인 영양군민체전으로 일상에 지친 군민들 몸과 마음의 재충전 기회와 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되길 바란다."

영양군은 오는 12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제53회 영양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양군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영양군에서 후원하는 제53회 영양군민체육대회는 오는 12일 오전 09시30분에 50사단 군악대 연주와 함께 6개읍면과 향우회부, 직장부 등 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1만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하여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영양군체육회에서는 일반부 및 생활체육부 7개 종목(100m, 400m릴레이, 열차경기, 이어달리기, 중량운반달리기, 단체줄넘기, 단체줄다리기)과 어린이부 3개 종목(홀라후프, 고무신멀리던지기, 투호놀이)으로 경기종목을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오자미바구니놀이

는 제외하고 번외경기로 신발던지기를 추가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군민의 호응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종목별 경기를 마무리한 후에 「양수발전유치위원회 범군민총결의대회」와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주내용으로 하는 「양수발전유치위원회 군민화합 한마당」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양군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유서깊은 군민화합한마당 잔치인 영양군민체전을 통해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수발전소의 성공적인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주택과 및 지역건축사회, 경북도 건축대전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활동 펼쳐

홍보부스 설치해 100만 서명운동 동참 적극 전개



경주시청 주택과 직원과 경주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힘을 모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5일, 포항 철길 숲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건축대전 행사장에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홍보부스를 만들어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전개했다.

방문객들은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힘을 보탤다.

최규식 경주지역건축사회장은 "반드시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치를 위한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이한덕 주택과장은 "경상북도 건축대전 행사장에서 APEC 정상회의의 유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계유산도시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군위군, 대구광역시 시정혁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군위군은 2023년 하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정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올해 처음 참가하게 된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과 신공항유치에 있어 축산악취관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축산악취저감 T/F팀의 추진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참가 첫해에 장려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군위군 축산악취저감 T/F팀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축산냄새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 단독사업이 아닌 민-관 협업을 축산악취를 저감하고자 지난 2022년 6월 20일 출범하였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축산악취저감 T/F팀은 생균제 지원사업,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및 군위축협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등 예

산사업과 축산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무상제공 및 돈사 외부 살포와 축산악취모니터링 등의 비예산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공열 농정축산과장은 "축산악취저감을 위하여 지자체만이 아닌 군위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올해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축산악취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전남도, 전국체전 밝힐 4개 불꽃 합쳐 성화 출발

전남도, 10일 도청 만남의 광장서 화합·출발행사

전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합화 및 출발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자원봉사자, 응원단, 전남체중 체육꿈나무 80명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의 마음을 담은 소망벽돌 쌓기 퍼포먼스, 스포츠 치어리딩과 도립극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안전램프 릴레이, 성화 합화, 성화봉 점화 및 최초 봉송주자 인계, 봉송주자 출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해남과 고흥에서 특별 채화된 2개의 불꽃과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에서 각각 공식 채화된 2개의 불꽃이 4개의 안전램프에 담겨 도청 운전도출에 안치됐다. 이날 합화식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대장정을 알리는 하나의 성화로 합쳐졌다.

안전램프에 담긴 4개의 불꽃은 제104회 차를 맞는 전국체전의 의미를 담아 전남도민 104명이 네 개 갈래로 나눠 릴레이를 통해 도민 대표 4명의

손을 거쳐 최종 합화가 4명에게 전달됐다. 합화자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교육감, 목포시장이다.

이번 합화식에서 도민 대표 4명은 전남 미래전략산업인 2차 전지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 기업 KC(주)의 박찬용 연구원, 귀농 후 농업 분야에서 아열대작물로 신 소득 모델을 창출하는 청년 강소 귀농인 신해민 씨, 대한민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전남체고 이다원 학생, 다문화 가정 육상 꿈나무 전남체고 나상우 학생이다. 각 분야에서 전남의 미래 발전을 향한 혁신과 도전을 주도하는 도민과 다음 세대 한국체육을 이끌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정했다.

합화된 성화는 성화 봉송 첫 주자에게 전달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순회 봉송한 뒤 13일 전국체전 개회식과 11월 3일 장애인체전 개회식 때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돼 체전을 밝힐 불꽃으로 타오를 예정이다. 147개 구간은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장애인체전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



전날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도민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며 “도민화합, 문화관광, 국민감동, 미래희망 체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어린이 종합안전체험축제, 남원에서 열려요!

일시 : 10월 23일, 24일 10:00~16:00 장소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시는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춘향골 체육관에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관내 어린이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체험교육인 '남원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에서는 교통안전, 화재, 완강기 체험 등 13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춘향골 체육관에서 비상구대비, 감염병 예방, 식품안전, 보행안전, 심폐소생술, 수상안전, 소화기 체험, 가스안전 부스를 운영하며, 실외 광장에서 는 교통안전, 재난예방체험, 지진화재대피, 승강기 안전체험 등 이동식 체험 차량이 배치돼 재난·재해 안전

체험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체험교육에 많은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각 읍면동 등에 홍보했고 참여는 행사 기간 중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체험 가능하다. 안전재난과 백강규 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익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어린이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콩 시범사업 평가회 '성료'

전남 함평군이 10일 “엄다·손불면 일원 및 선도단지(장성)에서 시범사업 참여농업인 및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콩 시범사업 평가회를 지난 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지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함평군 관내 재배단지 및 품종 비교포에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설명했으며 콩 재배 노하우, 신 품종 특성 등에 대해 공유하고 논콩 재배 선도단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특히 선도단지 벤치마킹을 위해 장성군의 논콩 우수 생산단지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극복방법, 잡초방제, 농업규모화, 공동경작 노하우 등 재배 및 경영에 도움이 되는 현장교육을 실시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콩 시범사업 평가회에 농업인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 맞춤형 사업발굴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걷기좋은 계절, 순천으로 가을여행 떠나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마라톤대회 격상’,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등 높은 긍정 평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청명한 하늘은 푸르게 펼쳐지며 따사로운 햇살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계절 가을. 아름다운 해변길을 걸으며 일출을 맞고,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 봐요!

순천시는 14일부터 11월까지 걸어서 순천 속으로 남파랑길 가을 여행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해남군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1470km의 길이다. 남파랑길 순천구간은 61코스 13.7km, 62코스 24.8km의 순천만 해안길로 순천만 해안경관과 갈대밭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이달 14일과 28일, 내달 11일과 25일 4회에 걸쳐 일출을 맞이하며 걷는 ‘새벽걷기’를 운영한다. 21일과 내달 18일에는 남파랑길을 천천히 끝까지 걸어

보는 ‘마냥걷기’를 운영하는데 노르딕워킹, 맨발걷기, 명태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지며 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1박 2일 ‘순천만 섀넬트레킹’도 진행한다.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완주인증 시 순천 남파랑길 기념 배지를 증정한다. 시는 참가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팔마체육관, 순천역 등에서 걷기 구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차수별 2~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누리집(순천시사무예약)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바닷길과 관광 자원을 직접 경험하며 쉽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10일간 예술의 전당 방불케 할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20일 전야제 'K-POP 축하공연' 미스몰리 등 스킨프·스맨파 출연 댄서 다수 출연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묘미인 볼거리, 즐길거리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보낸 10일’이라는 부제로 영산강 둔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2천년의 유구한 역사문화도시인 나주만의 볼거리, 즐길(체험)거리, 먹거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남도의 젓줄이자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영산강 중심부에 위치한 나주가 시대별 가장 번영했던 장면을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로 제작해 선보인다.

10일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법한 축제 10대 핵심(킬러) 콘텐츠를 선정했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는 그중에서도 축제의 서막인 전야제, 개막식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일 축제 전야제를, 21일 개막식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10일간의 영산강 축제 대장정을 알릴 계획이다.

먼저 전야제는 20일 오후 5시부터 전 세계인들의 한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K-POP’(케이팝) 댄스 축하공연 ‘THE NEW’(제목)로 시작된다. 공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남·여 춤꾼들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스트리트 댄 파이터’,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 출연자·팀들이 대거 출연한다.

미스몰리, 무빙업, 제이락, 녀스, 두락, 숲 등 유명 댄서(팀)들을 비롯해 총 20팀이 출격해 4시간 동안 댄스배틀, 쇼케이스, 축하공연 등으로 영산강수변 무대 위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부터는 축제 공식 개막식과 퍼포먼스, 뮤지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개막 퍼포먼스는 54척의 조운선 선상 퍼레이드와 불꽃쇼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 최대 볼거리로 꼽히는 개막 퍼포먼스는 한강 이남 가장 큰 내륙포구였던 영산포에 54척의 조운선이 정박해 있다는 기록에서 착안했다. 영산포에는 고려시대 때 개경, 조선시대엔 한양으로 천라도 각 지역에서 거둔 세곡을 실어 나르던 조운선이 정박해있었다.

‘나주 광흥창’에 소속된 조운선은 53~54척으로 1년에 3번, 3만석 이상의 세곡과 특산물을 실어 날랐다. 영산포는 물류의 중심지였고 영산강은 살아있는 강이자 바다로서 나주의 번영을 이끌었다.

퍼포먼스에서는 54대의 조운선이 개경, 한양의 특산물을 가득 싣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영산강을 가로질러 도착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조운선이 들어오는 영산강에는 역대급으로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남정숙 축제 총감독은 개막 퍼포먼스에 대해 “나주의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를 상징하는 선상 퍼레이드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어머니의 강, 영산강의 품으로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환한다”며 “54척의 선박은 고려, 조선시대처럼 영산포에서 나주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영산강을 가로질러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선상 퍼레이드, 불꽃쇼 이후에는 뮤지컬 ‘왕건과 장화왕후’(제목)이 연이어서 진행된다. 왕건과 장화왕후는 나주에서 전해지는 왕건과 버들낭자 오도영(극중 이름)에 얽힌 고려건국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뮤지컬이다.

줄거리는 영산강 인근의 우물인 완사천에 물을 길고 있던 오도영이 목이 마른 왕건에게 물을 담은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건넨다. 왕건이 이윽을 묻자 오도영은 “목이 마르다고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하는 법”이라고 답한다.

남자의 현명함에 감탄한 왕건은 오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나주에서 며칠 밤을 뮤지컬 이네 떠났고 사랑을 약속한 왕건의 부재에 오남자는 몹시 외로워한다.

뮤지컬에선 나주 지방세력가인 오다련의 딸이자 슬기롭고 진취적인 낭자 오도영이 사랑을 쟁취하고 왕건과의 인연을 통해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영산강변에서 아름답게 펼쳐 보인다.

공연 연출은 나주에서 활동하는 안주는 연출가, 주인공인 오도영(장화왕후)는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여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은경씨, 왕건 역은 유명 오페라가수인 이동명 씨가 맡아 대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남정숙 감독은 “축제의 킬러 콘텐츠 중 킬러콘텐츠는 영산강이 있어 가능한 54척의 선상퍼레이드와 불꽃쇼, 그리고 고려 건국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건과 장화왕후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이다”라고 말했다.

남 감독은 이어 “축제 기간 10일 동안 예술의 전당에서도 보기 어려운 퀄리티 높은 예술공연,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핵심 키워드”라며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역사문화축제이자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축제장서 1회용품 확 줄인다

10일 정읍 구절초 축제장을 찾아 캠페인 전개



전북도는 10일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 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표 가을꽃인 구절초 축제를 즐기러 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축제는 즐기며 환경을 돌보자는 의미로 '1회용품 줄이고(GO!) 축제는 즐겁고(GO!)'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머그컵을 나눠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품 사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일상생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실천 운동으로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며, 청사 내 다회용품 도입,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장례식장 다회용품 보급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으로 도시민 유입 박차

강진군이 활발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민 유입에 박차를 가한다.

강진군이 지난달 25일 서순철 부군수 등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빈집 리모델링 사업 선정 심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9월 초까지 접수된 78건을 대상으로 장기임대 5년 7가구, 장기임대 7년 5가구, 단기임대 1가구, 자가 거주 8가구 등 총 2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해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시 5,000만원, 7년 임대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

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빈집은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관내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활용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도시민 유입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제1차 심의회를 통해 27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중이며 민선 8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55가구(동)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강진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빈집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추준호/기자

완도군↔한전MCS(주), 사회공헌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도시지역 독거노인 돌봄·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완도군은 지난 6일 한전MCS(주)와 도시지역 독거노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협력 강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노화 정도와 서넛도, 청산 모도, 소안 횡간도 등의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데이터 기반 독거노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요금 매니저 연계 독거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헬스케어 기반 위험 탐지 및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대상자 가구의 전기요금 데이터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하

고, 독거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통화로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말벗, 집안일 등을 지원하여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대상자 중 건강 고위험군 3명에게는 헬스케어 장비를 제공하여 심박동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만일의 경우, 위험이 탐지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매니저가 긴급 출동하여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 불편, 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부속 도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구례군, 화염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로 특화 빵 개발

구례 화염사색 협동조합에서 특화 빵 개발 및 지역 성장 기대

전남 구례군은 화염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화 빵을 개발해 10월 6일부터 화염사와 화염사 상가에서 시범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은 화염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홍보물 제작, 특화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화염지구 상인들은 구례 화염사색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구례 화염지구를 대표할 만한 특화 빵을 개발했다. 현재 상표 및 디자인 출원까지 마쳤다.

구례 화염사색 협동조합은 매년 이른 봄 화염사에서 매혹적으로 피어나는 홍매화(혹매화)와 지리산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소재로 '혹매빵'과 '반달곰빵'을 개발했다. 오는 화염문화제 기간에 맞춰 10월 6일부터 특화 빵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특화 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할 특색 있는 레시피로 만들어져 구례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새롭고 특별한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판매는 2024년 6월 중공 예정인 복합문화공간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의 대표적인 간식거리가 될 특화 빵의 시범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방문객이 다시 화염지구를 찾고오고 지역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조도만두나무를 지키는 방법, 함께 만들어간다!

산림분야 전문가들, 진도 자생지에서 분야별 성과 공유하는 자리 가졌다



진도군이 지난 6일, 국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조도만두나무 현지외 보존방안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조도만두나무는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새롭게 발견돼 한반도에서만 자생하는 1속 1종의 고유종으로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이다.

신종 발견 이후 부여된 이름도 발견장소를 따서 '조도맨스'(Glochidion chodoense J. S. Lee · H. T. Im)로 명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반도 일부지역(진도군)에만 자생하는 조도만두나무의 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자 특성평가, 유전자형상평가 연구 중이며, 국립수목원과 함께 결실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현장설명회는 한반도 특산종이자 희귀수종인 조도만두나무를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 곤충 연구자 및 진도군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라며 "연구기관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미기록종 발견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조만간 학술발표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특산종 조도만두나무 보호와 보존을 위해 2019년 진도군 산림조합과 양묘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말까지 가로수 식재용 1,000주를 생산해 진도군 조도면 자생지에 2km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기부금 이어져

호텔에디션스 목포, 1천만원 목포시체육회에 기탁

희망과 화합, 감동체전의 성공개최를 향한 범시민적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에디션스 목포에서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기부금 1천만원을 목포시 체육회에 기탁했다.

지난 6일 목포시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호텔에디션스목포 김민상 대표이사, 박홍용 목포시장(체전 운영위원장), 김성대 목포시 체육회장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목포시장인 박홍용 체전 운영위원장은 "이번 양대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는 물론 목포가 스포츠 중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대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는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체전 준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물가 대책위원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나머지는 현행 수준 유지 수정 의결

화순군은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용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인상을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안건 제출 주무 부서장인 건설교통실장은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사업계의 경영수치 악화 가중으로 인

해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택시 운임·요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군민의 부담 최소화를 기본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기본운임(2km까지)은 제출안대로 1천 원 인상하고, 이후 운임과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군민 모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이 물가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강원도, 제577돌 한글날 기념 한글날 큰 잔치 행사 개최!

10월 9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다양한 한글 문화행사 진행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10월 9일 오후 14시부터 춘천 시청 광장에서 제 577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한글날 큰 잔치'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강원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단,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이 협력하여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케이팝(K-pop) 댄스, 국악 등 다채로운 한글날 기념 공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글 스티커 붙이기,

우리말 풀이, 한글 달고나 체험 등과 같은 문화 체험 행사들도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본선 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나의 한국 생활, 내가 소개하는 춘천 또는 강원도, 경춘선의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풀어 나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글날 큰 잔치' 행사를 지역의 행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

태백시는 장성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국비 33억 원, 도비 6억6천만 원, 시비 15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장성중앙시장 인근에 부지면적 1,120㎡(연면적 2,350㎡) 지상 3층, 총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 주민설명회 및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장성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및 주차차 민원해소되어 장성중앙시장 접근성 향상과 시장이용객 편의성으로 소비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춘천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춘천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한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총 7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하반기 중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시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흥천군과의 업무협

약을 맺을 방침이다. 흥천군이 현재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시의 바이오 예방·진단 분야 역량과 힘을 합쳐 '융합첨단 바이오 의약산업' 특화단지를 공동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선도 기업 및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신인 홍보를 통한 특화단지 유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춘천-흥천 특화단지 대상지로는 춘천은 ▲후평산단,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거두농공단지 ▲기업혁신파

크(예정지)이며 흥천은 ▲북방농공단지, ▲흥천국가항체클러스터 일대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계·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받게 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청한 AI-정밀 의료 융합 디지털 바이오 기회 발전 특구와 융합첨단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춘천이 첨단지식산업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대표단, 미국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시작부터 청신호

원주시 대표단의 미국시장 공략 마케팅이 첫날부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원주시 기업의 미국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8박 10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오른 원강수 원주시장과 원주시 대표단은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공격적 수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뉴욕 현지시간으로 10월 6일 오전 10시 뉴욕 퀸즈시 아드리아 호텔 겸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주)빨간화덕푸드, (주)서울식품, 주식회사 소닉월드, 미라클5.5, 에이치앤케어, 코트독 등 각종 생활용품 및 소비자 위주의 관내 우수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총 12개사 20명 내외의 현지 유력 바이어가 초청돼 열띤 상담을 벌였다.

상담 결과, 총상담액 534만 달러, 약 74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일 현장에서 계약이 성사된 금액만 35만 8천 달러, 약 5억 원의 괄목할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미라클5.5'는 이번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숙취해소 커피를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미라클 5.5'는 이미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숙취해소 음료와 커피를 접목시킴으로써 당일 현장에서 1차 샘플 오더 계약을 따내 미국시장 첫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소형가전제품을 선보인 '에이치앤케어'의 경우, 현지 상담 바이어가 정수기

와 샤워필터 샘플을 현장에서 구매하고 직접 테스트를 거친 후 연결된 유통망을 통해 현지 진출을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빨간화덕피자'는 피자 도우에 대한 기술 및 생산 제휴를 맺고 미국 내 피자 전문점에 조리·판매 등으로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식의 직거래를 제안받으며 미국 현지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이 밖에도, 한남체인 등 한인마트에 참여 기업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특별 판매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하는 등 미국시장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원강수 시장과 원주시 대표단은 다음날인 10월 7일에 한남체인 특판행사에 참석해 특별 판촉 행사를 펼쳤다.

이날 시식코너에는 참여 기업의 제품을 맛보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미국 최대 PB매장인 '트레이더 조'에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냉동김밥의 핫한 인

기에 힘입어 한인마트를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발 빠른 마케팅 전략으로 원주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 대표단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두바이까지 전세계적 유통망을 갖춘 애플루트 뉴욕 본사를 방문하여 원주시 20여 개 화장품 제조기업의 리스트와 주력상품을 소개하며 애플루트 뉴욕의 유통망을 통한 판로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애플루트 뉴욕 JT Yang 디렉터는 "지금까지 서양인의 색조 화장이 한국적 정서와 달라 국내 화장품과의 교류 및 성사가 어려웠으나 최근 기초제품을 중심으로 K-beauty가 기능성, 민감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원주시 기업의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UNESCO Korea in Korea

경북 세계유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가도길, 하회권 퀸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충남도, 배 과수원 디지털화 기초 자료 모은다

도 농기원-폴란드 포즈난대, 동·서양배 기후변화 생육 공동 연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0일 폴란드 포즈난대학교와 기후변화에 따른 동양·서양배의 생육 양상 및 양·수분 이동 연구를 위한 연구협약을 온라인을 통해 체결했다.

이번 연구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상환경 및 양분 이동 연구를 수행해 배 과수원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과원 기초 연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폴란드 포즈난 생명과학대는 1919년 개교해 토양 및 식물학, 농화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연 평균 기온이 약 10°C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고 강수량도 약 700mm 정도로 우리나라보

다 약 두 배 낮아 국내와 다른 재배 조건에서 동양배와 서양배의 양분 흡수 양상을 비교해 기후변화에 따른 배의 생리 생태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또 국내에 없는 유전자원들을 가지고 있어 지속된 교류를 통해 추후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수상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이번 공동 연구가 도의 배 산업과 폴란드 농업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과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협약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가을밤 재즈 선율로 채운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폐막

박경귀 시장 "아트밸리 아산 추진 동력, 시민·관광객 관심·호응에서 나와"

서늘한 가을밤을 포근한 재즈 선율로 감싸 안은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with 자라섬(아래, 아아재페)'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산시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아아재페'는 같은 기간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세계적인 명성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린 아산시의 첫 재즈 페스티벌이다.

아산시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손을 잡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초청된 국내외 최정상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 유치에 성공해 재즈 마니아는 물론, 재즈 공연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아아재페' 공연 첫날인 7일은 국내 최고 베이시스트 서영도와 202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 부문 수상자 김윤희의 공연을 시작으로 '카리나 네볼라', '집사(ZIP4)', '미스크(MISC)', 2023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기획 프로젝트 팀 '새로'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8일에는 2019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재즈 앨범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모이세스 산체스 인벤션 트리오와 2021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얻은 가수 바다와 기타리스트 조영민의 재즈 클럽 공연을 비롯해 반도, 덕스트릿, 애쉬 퀴엣, 킹스턴 루디스카 등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마지막 날인 9일 공연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아담 벤 에즈라, 2017년 캐나다의 그래미라 불리

는 주노(JUNO) 어워드를 수상한 캐나다 대표 뮤지션 브리아 스크너버그 등의 공연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뮤지션들의 자유로운 즉흥 연주와 관객들의 호응이 매 순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재즈는 "매 공연이 초연"(영화 '라라랜드')이라 불린다. 때문에 재즈 팬들은 타 음악 장르 팬들보다 열정적인 '직관(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것)' 행동을 가졌다고 평가받지만, 국내 유명 재즈 페스티벌은 주로 수도권에서 열려 영호남권 재즈 마니아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아아재페'는 바로 이 틈을 공략했다. 시는 3일간 6천여 명의 관객이 '아아재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입장권인 출입용 팔찌 배부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서울·부산·남원·일산 등 공연 관람을 위해 일부러 아산을 찾는 관람객도 상당수였다. 돛자리, 캠핑 의자 등 각자 준비한 장비로 나만의 관람석을 만들고, 맥주와 와인 등 각종 먹거리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들의 모습 한눈에도 '재즈 페스티벌 숙련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번 공연을 통해 재즈 공연을 처음으로 접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 유명 가수인 이은미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는 한 중년 관람객은 "마지막 순서인 이은미 씨 공연을 기다리며 앞 순서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이게 재즈라는 거구나' 싶더라. 오늘 날씨가 신정호 분위기에 잘 어울려 기회가 된다면 또 찾

고 싶다"고 말했다.

3일간 신정호의 가을밤을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채운 '아아재페'는 끝이 났다. 메인 공연 외에도 플라마켓, 푸드존, 에이블아트 전시, 어린이 재즈아트존 운영 등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해 공연장을 찾은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을 만족시켰다.

시는 첫 재즈 페스티벌 개최를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아아재페'를 통해 '아트밸리 아산' 도시브랜드도 한층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박경귀 시장은 "'아아재페'를 찾아주신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 여러분들과 관람객 여러분, 멋진 공연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예술의전당을 가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대도시를 방문하듯,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공연을 즐기기 위해 우리 아산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트밸리 아산' 추진 동력은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연을 찾아주시는 방문객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아산시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의 방향은 상상력과 역발상"

청남대 큰섬 등 빈곳·버려진 곳 적극 업사이클링(새활용) 강조

"도지사는 충청북도를 배를 직접 움직이는 항해 조타수가 아니라 선장이 되어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주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1년여 기간 동안 충북의 변화에 대해 돌아보면서 "충북의 변화와 성과는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고 있다"며 "지금처럼 가면 개혁이 또 다른 개혁을 낳는 일이 벌어지면서 3년 뒤 충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공무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해온 일의 연장선에 있고, 나는 여러분이 하는 일의 방향만 잡으면서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도정 방향을 설정하면서 '빈곳'과 '버려진 곳'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도청 옆의 벙커, 청남대에 방치된 수십 곳의 크고 작은 벙커도 미술관으로, 카페로 바꾸고, 비행기 소음 때문에 버려지는 종축장도 바꿀 생각"이라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청남대의 큰섬을 충북의 랜드마크로 바꾼다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가 나아갈 방향은 커다

란 상상력과 역발상"이라며 "이렇게 나아가면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정화/기자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국내산 국화 신제품 일본 수출 적합성 평가

일본 소비자 선호 충남 육성 '별사랑' 등 8품종 시장성 우수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최근 국내산 절화 국화 표본을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일본 화훼 수입업체에 공급, 일본 화훼 전문가들로부터 수출 가능성에 대한 총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는 우수한 품종으로 선발된 국내 육성 29품종에 대해 평가받았으며, 일본 소비자 선호도와 각 품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 중 충남도원의 '별사랑'과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의 황색 홀꽃 계통 등 8품종이 뛰어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가를 진행한 일본 화훼 수입업체인 임은영 에이-월드(A-World) 대표는 "홀꽃 계열 품종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근래 일본 시장은 더욱 세분화해 소국과 별개로 다양한 품종에

대한 소비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수출용 국화 신제품 육성 시 이러한 소비 경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수출 평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의견을 검토해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품종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국화 수출 증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은아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연구사는 "이번 평가는 국산 국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출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국화 재배 농가의 판로 개척·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고성군, 10월 13일까지 어업인 수당 70만 원 지급

고성군이 오는 10월 13일까지 '2023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456 어가에 3억 1,9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고, 올해는 509 어가에 3억 5,630만 원으로 가구당 70만 원씩 고성사랑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 1. 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대상자는 10월 13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된다. 단, 지원 대상자가 질병 부상 등 거동이 불가능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의 수임자가 수령 가능하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류비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로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페이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신분증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된 신분증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더해서 신뢰확인이 필요한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0월 6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다양한 민간 앱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디지털 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참관하고, 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화재 대응 등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한다.

이상민 장관은 "반도체산업 현장의 안전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관계자 등에게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4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노사발전재단과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 업무협약을 공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컨설팅 업무수행기관은 한국표준협회 책임컨설턴트 공인노무사가 직접 수행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일터혁신 지원

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담당자와 대면 인터뷰, 직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검토 등으로 내부 환경을 분석해 공사에 적합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향후 약 3개월간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등 전문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영주시
YEONGJU CITY

2023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풍기인삼축제

2023.10.07.토
— 9일간 10.15.일

주최·주관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문의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2023 제50회 신라문화제

SILLA CULTURAL FESTIVAL



예술제 10.06.FRI — 08.SUN
 축제 10.13.FRI — 15.SUN

경주 봉황대 및 월정교

서울지하철, AI 활용하여 지하철 이상행동 감지한다

6일 서울교통공사-서울디지털재단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하철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은 6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 연구' 등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협력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연구 △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분석, 공동 연구과제 지속 발굴 △ 공공분야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향상 관련 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공사와 재단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연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모델은 지하철 내에서 이상행동 발생 시, AI가 실시간 인지하여 관제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현장에 알리므로써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한 모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 적용되는 기술은

CCTV 영상의 묘사정보와 행동 패턴을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으로 상황 검색과 사고자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공사는 최근 불특정 시민 대상 사건·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보안관이 협력하여 이례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최근 각광 받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 기획연구'는 올해 12월까지 3개월간 기술 테스트와 모델설계를 마치고, 5호선 역사 중 한 역사를 선정하여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단계에서 기술력이 검증되면 이후 전 역사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 연구과제를 지속 개발하고 시민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재단은 공사

임직원 대상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제공하여 공사 디지털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AI 일상화 시대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AI로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협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 도시철도에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성형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추적 모델은 최근 지하철 내 난동 등 불특정 시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며 "공사의 시스템과 인프라와 재단의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을 접목하여 공동 연구를 통해 안전한 지하철을 구축하고 시민안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북도, 봉어섬 출렁다리 등 관광시설 현장점검 실시

전북도, 심민 임실군수와 함께 직접 현장 확인

전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일부터 12일까지 임실군 운암면에 소재한 봉어섬 출렁다리 등을 찾아 시설물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심민 임실군수와 함께 점검 첫날인 10일 임실 봉어섬 출렁다리 현장을 직접 찾아 관리기관인 임실군으로부터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 점검을 의뢰한 토목 분야 전문가에게

그 결과를 설명받았다.

참석자들은 설명을 들은 뒤 출렁다리를 왕복하며 주탑 케이블과 바닥데크 등을 육안으로 살피면서 토목 전문가와 함께 관리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 사고는 작은 결함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민들과 외지 행락객들이 안심하고 전북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출렁다리 9개소, 케이블카 3개소, 썰라인 1개소, 스카이워크 3개소 등 16개 시설물에 대한 토목·전기·기계 등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파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완료

교통·식품·유해업소·광고물 점검으로 안심 통학환경 조성

파주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한달간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완료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로,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학교 인근 공사장 등 통학로 안전 ▲불법영업시설 및 청소년 유해시설 ▲식품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노후·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을 위해 파주시 4개 담당 부서가 주도해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점검에는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지도위원회, 유해환경감시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보호식품 전담관리원 총 415명이 참여했다.

파주시는 점검 대상 734곳 중 개선이 요구되는 72곳에 대해 현장 계도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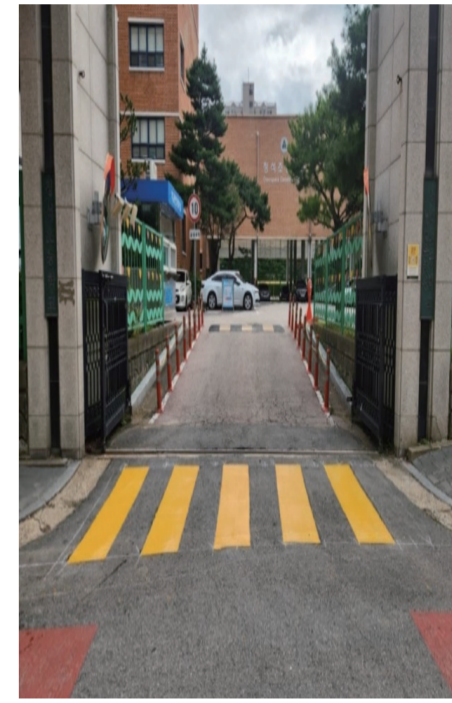
불법광고물 201건에 과태료 처분을, 청소년 유해업체 5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관내 학교와 협조해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 배부 및 교육을 실시했고, 불법광고물 신고 안내 방법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유해환경감시단 111명이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설, 신호등 정비, 속도표지판 정비 등 보수를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학교 주변 유해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지진, 당황하지 마세요! 오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적극 홍보... 양수기 사용법 교육 또한 병행

오산시는 지난 6일 대원동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이렇게 준비합시다!'를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7월 전북 장수군의 소규모 지진과 9월 모로코 강진으로 지진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진 발생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전

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지역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원동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상가의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전단지 등의 각종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자율방재단은 재난 관련 홍보 외에도 환절기가 시작된 만큼 하절기에 준비해 두었던 양수기 등의 수방 장비를 점검하고, 양수기에 대한 간단한 교

육을 받아 사용법을 다시 숙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더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지진 대비 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 비록 여름은 지나갔지만 비가 국지성으로 쏟아지는 만큼 침수에 대비해 양수기 사용법을 항상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고객 차량 무상점검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13일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기아 자동차 작전지점과 협업체 고객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30분 동안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제조사 구분 없이 전 차종(승용, RV, SUV, 1톤 이하 화물차)의 타이어 공기압 측정, 엔진 작동 상태, 엔진 누유 기본 점검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 기간 이후 차량 운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양구민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종 점검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박광



순 이사장은 "교통의 요충지인 계양구에서 차량 운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행사로 안전한 자동차 운전 문화를 정착하도록 앞장서겠다."라며,

"계양구민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남/기자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 제2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장준용 동래구청장, "축제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어울리면서 서로의 문화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축제이다. 동래성전투란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재미와 놀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에 많이 방문하시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히

부산 동래구는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역사·교육·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운 '제29회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동래문화회관, 동래읍성광장, 온천장, 온천천 인공폭포 일원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여는 마당 개막식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성전투재현 실경 뮤지컬 ▲동래세가 탁 줄다리기 ▲1592년, 조선을 만나다 '관문체험' ▲1592년, 동래를 즐기다 '동래장터 체험' ▲동래읍성 가요제 ▲세일대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등 4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동래읍성민의 하루를 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여는마당 개막식'은 13일(금) 17:30 ~ 19:10, 야외공연장에서 '불꽃처럼 뜨거웠던 동래사람들, 불꽃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다'라는 슬로건으로 17:30 ~ 18:00, 동래구국악관현악단과 동래구소년소녀합창단 오프닝 공연에 이어 18시 ~ 19시, 개막선언, 애향대상 시상식, 개막공연으로 유태평양 특별공연과 LED 미디어 퍼포먼스 '생동감 크루 오방색'이 펼쳐지며, 이어 19시부터 10분간 불꽃쇼가 동래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를 놓게 된다.

◆'동래부사행차 길놀이'는 '동래부사 행차요~'하는 슬로건으로 13일(금) 16:00 ~ 17:40, 동래부동헌 ~ 신청사 앞 ~ 명륜1번가 ~ 명륜자이정문 ~ 명륜 오거리 ~ 센트럴파크에서 ~ 동래문화회관 구간에서 조선시대 민정을 살피던 동래부사 행차를 재현! 행렬의 활기가 명륜1번가로 이어지길 바라며 동래부사가 명륜1번가를 향하는 행사이다.

◆'축제의 길길 프로그램인 '동래성전투재현 실경 뮤지컬 '외로운 성''은 조선시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맞서 싸운 송상헌 동래부사와 동래읍성민들의 결사항전을 그린 실경 뮤지컬로서 화려한 역사가 아니라도, 이기지 못한 역사일지라도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읍성민들의 이야기 '외로운 성 시즌2'를 올해는 사전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부산지역 초등학생 15명의 어린이 배우가 참여하여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경험을 만드는 행사로 개막공연(13일(금) 19시 20분 ~ 20시 20분)에 펼쳐지며, 2회(14일(토) 13시 ~14시), 3회(14일(토) 18시 ~19시), 4회(15일(일) 13시 ~14시), 5회(15일(일) 18시 ~19시)에 걸쳐 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동래세가탁 줄다리기'는 올해 실시하는 행사로 14일(토) 13:00 ~ 15:00, 온천천 인공폭포구간에서 동서부 각 250명 및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동래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세가탁 줄로 제작된 줄다기리로 우리 민족의 단합을 상징하는 대동놀이로 길이 90m의 세가탁 줄을 모두 함께 당기며 자연속 축제를 만끽하는 줄놀이 행사로 흥겨운 난장과 500여 명

의 선수가 한마음으로 대동단결하는 장관을 새롭게 단장된 온천천 인공폭포 앞에서 펼쳐진다.

◆'1592년, 조선을 만나다 '관문 체험''은 1592년 동래읍성민들의 일상과 만나는 관문체험으로 조선시대 이름을 짓고, 갓을 만들어 쓰고, 복식을 갖추고, 직업을 찾아 430여년전 동래읍성장으로 역사힐링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나는 조선사람 아무개요(호패체험) ▶선비는 갓이지(오마이갓! 갓만들기) ▶아시아의 화장대, 땀기 만들기 ▶왕이 될 상이오~(거리의 화공) ▶여행의 시장은 환전(엽전 환전소) ▶일상에서 진로를 찾다(조선직업실록) ▶청춘, 한복에 반하다(복식, 메이크업, 추억네컷) 등의 다양한 관문 체험이 진행된다.

◆'1592년, 동래를 즐기다 '동래장터 체험''은 1592년 조선시대 동래읍성민들의 생활을 즐기는 장터 체험으로 조선시대 전통 체험을 통하여 읍성민으로서의 재미를 느끼고 교육적 의미를 배우면서 동래읍성민으로서의 하루를 만끽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전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주제관 체험으로 동래부사 송상헌 투구만들기, 갑옷 체험 등이 펼쳐지며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과학체험전 ▶주제관 체험 ▶전통체험으로 엽전환전소, 전통연 만들기 등이 펼쳐진다.

◆'동래읍성 가요제'는 15일(일) 18시 ~ 20시, 야외공연장에서 사전 예선을 통과한 동별 대표들의 본선 무대와 나태주, 하동근, 천상 등의 초청가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동래읍성 가요제는 올해 QR코드를 이용해 직접 투표하는 현장 인기상이 신설됐다.

관람객은 행사장에서 배부된 손목 팔찌에 인쇄된 QR코드장 인기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인기상은 중복 수상 가능하고 동점자 발생 시 심사위원 점수 고득점자로 선발한다. 초대 가수는 나태주(태권트롯맨), 하동근(미스터트롯2) 등이 출연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 마련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축제는 MZ세대도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지난해 신설해 큰 호응을 얻었던 ▲'또 다른 동래성 전투'조선 힘쟁이 댄스 배틀 ▲'여기는 클럽 조선' 한복 디스코 파티 등의 젊은 세대의 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보강하고, MZ세대가 역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놀이로 풀어낸다.

▲'복문이 열렸습니다~' 1592년 조선 동래에서 펼쳐지는 '조선판 O X O 오징어게임' 읍성민게임은 15일(일)12시 30분~15시까지 야외공연장에서 사전접수된 1994~2010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복문이 열렸습니다, 동래 달고나, 고무신 던지기, 왕좌를 찾아라 등이 펼쳐진다.

▲'우리놀이 진검승부' 읍성오락실은 14일~15일 11시~12시, 16시~17시 읍성광장 4구역에서 '우리놀이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문무(文武)경비는 필요없다' '필요한 건 운과 힘!'으로 펼쳐지는 감각, 역사, 근력, 균형승부

가 펼쳐진다.

▲용모 파기된 자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동래읍성 4구역 내, ●사도, 포졸, 꽃선비, 뽕덕어멈, 아씨, 돌쇠 등을 찾으시오 ●찾은 용모파기된 자에게 스티커를 얻어 리플렛에 붙이시오 ●스티커를 4개 이상 완성하고 1구역 '용모 파기된 자를 찾아라' 부스를 방문하면 기념품을 드리오(선착순 1일 300개)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악하는 MZ들이 k-pop으로 국악의 멋을 알리는 '야금야금 북문버스킹'이 14일(토)16시 ~ 17시, 소망터널 옆 언덕에서 국악과 k-pop의 만남 '야금야금 소리는 동래소녀'와 국악의 앙상을 '국악관현악단' 공연이 펼쳐지며 ▲동래한걸을 야행 & 달빛티(Tea)크닉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동래 세일대축제'는 축제기간인 13일(금) ~ 15일(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각 업소에 따라

5 ~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쿠폰을 보여주면 각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축제장은 뛰니해도 먹거리가 풍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래구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먹거리 장터는 ▲읍성민 먹거리장터는 2구역에 소고기국밥, 국수, 도토리묵, 전, 떡볶이, 순대, 고치 등이 준비되며 ▲동래장터 4구역에 뽕빵한 동래읍성빵인 읍성제빵소를 운영하며 ▲<THE동래파진>주막 ▲무량사 터 5구역에 먹거리 트럭을 운영, 옛날 핫도그, 소떡소떡, 호두과자 등 ▲수수한 텀블러 이벤트로 축제 운영본부 및 종합안내소에서 개인컵 소지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나, 올해는 동래의 대표 문화재인 동래읍성 북문과 동래의 구조인 학을 새긴 '동래읍성'도 선보일 예정이다.

매년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얻는 줄타기 공연,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극,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과학체험, 동래 헤민서, 전통 혼례 체험, 관문체험, 동래부사 투구 만들기, 전통연 만들기 등의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공연과 체험들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동래구 관계자는 "교육,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역사교육형 체험축제인 제29회 동래읍성역사 축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민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3일간의 역사 힐링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축제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어울리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전투라는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하되, 재미와 놀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동래읍성역사축제에 꼭 방문하시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경북교육청, 학생동아리 활동과 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실력을 뽐낸다.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에 3개교 학생동아리와 안전교육 2개 기관 참가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금)부터 7일(토) 양일간 경상북도청 천년 숲에서 열리는 '2023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에 경북 도내 3개교 학생 학습동아리와 종합안전 교육기관 2곳이 참가했다.

종합안전 체험행사인 이번 페스티벌은 화재 안전, 자연 재난,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 안전, 보건 안전, 어울림 행사 등 행사 곳곳에서 이색 프로그램이 준비돼 일상 속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3개교 학생들이 평소 갖고 닦은 동아리 활동과 전문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안전 체험 교육기관 2곳이 참가했다.

예천의 경북일고등학교 학생 과학동아리에서는 '산과 염기 반응을 이용한 버블바 입욕제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의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레인보우 타투 ▲키라키 라메이크업 ▲트윅를 헤어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미용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홍보했다.

영주의 한국국제제리고등학교에서도 천연 색소를 이용한 나만의 캔 음료 만들기 등 자원 재활용 관련 체험과 다양한 교육자료 부스를 운영했다.

종합안전 체험 교육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에서는 가짜 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는 안전교육 등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사)경북어린이안전학교는 응급처치 사항 VR/AR 체험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선보였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학생 안전교육 용품과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학교 규모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바로 연결 4500(사고제로)' 서비스 신고제(080-851-4500)를 운용하여 신고체계를 365일 실시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성장하도록 체험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특히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을 다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중등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 생활의 역량 강화

정영석 유초등교육과장, "이번 체험프로그램으로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잠재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데에 좋은 경험이 되었길"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수), 27일(수), 이번달 4일(수), 오는 11일(수) 총 4회기 동안 포항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포항시 일원에서 포항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중등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관련 이론 교육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진로인식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진로·직업 생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친한

물품만들기(에코백, 노미세플라스틱 샵, 클렌징폼 등)·도예·원예·바리스타·근로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미래 직업생활과 진로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포항교육지원청 정영석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잠재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통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는데에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문학과 함께 과거로 떠나는 여행 2023 탐리여자중학교 전주한옥마을 문학기행



탐리여자중학교는 지난 5일(목), 전교생이 함께하는 '2023 문학기행-문학과 함께 과거로 떠나다'를 실시하였다.

문학기행은 각 지역의 대표 문학관을 방문하여 작가의 삶과 작품의 배경을 둘러보고 인근의 명소를 탐방하는 독서기반 체험활동이다. 이를 통해 작가와 작품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학적 사고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전주 최명희 문학관을 방문하여 한국 훈을 일깨우는 문학사의 영원한 기념비로 꼽히는 장편소설 혼불과 17년이라는 긴 시간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소설가 최명희의 삶을 그의 손길이 담긴 원고지 1만 2000장

을 통해 보며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의 명소인 경기전, 전동성당, 교동미술관 둘러보고 각 장소와 관련된 퀴즈풀기, 숨은 명소 찾기 등 활동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국의 정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입어 보기 힘든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풍경을 보며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게되었고, 최명희 작가와 소설 '혼불'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된 것이 많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정금자/기자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 착공

전태영 교육장,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으로 영주지역 4개의 주요 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센터의 연수/연구 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 기대"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월), 가설 공사를 시작으로 현 청사 대지(테니스장)에 연면적 2,284㎡, 지상 4층 규모의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영주남부초)·영재교육지원센터(영주동부초, 남산초)·Wee센터(교육지원청)·기초학력거점센터(교육지원청)를 아울러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영주교육지원청의 대회의실(80석 규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규모 강당(200석 이상 규모) 시설을 배치하게 된다.

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을 통해 특수

교육지원센터, Wee센터, 기초학력거점센터는 상담 및 프로그램 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영재교육지원센터는 5개 과정보다 운영 교실 산재로 인한 관리와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규모 연수 운영을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전태영 교육장은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의 증축을 통해 영주지역 4개의 주요 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센터의 연수 및 연구 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놀이중심'개정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유치원 현장지원 교사 연수, 「학교 숲에서 만나는 숲놀이」

윤인한 교육장,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는 교육 시작 유치원, 자연과 함께 놀며 배울 때 바르게 성장한다.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금), 관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학교 숲에서 만나는 숲놀이』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 연수는 반디랑자연학교 조현하 강사를 초빙하여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숲놀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가을 숲이 주는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한 숲놀이 체험을 통해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정착을 위한 교사의 수업 역량을 키우고, 숲체험 놀이 활동 활용 방안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윤인한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는 교육의 시작은 유치원이고 자연과 함께 놀며 배울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으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호남 협력과 상생,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경북교육청, 2023년 하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 개최

임종식 교육감,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이 처한 학생 수 감소 등 공통현안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목) 15시 30분부터 6일(금) 양일간 The-K 호텔 경주에서 전남교육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 협력, 상생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금) 밝혔다.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양 교육청의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현안에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워크숍은 공동 주제 토의, 우수사례 발표, 부서 간 업무 협의 순으로 진행되는 한편, 학생 수 감소의 공통현안에 대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데 양 교육청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지, 경북 미래 교육지구와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경북 희망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경북-전남 간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운영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경주안전체험관을 체험하고,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을 탐방하며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이 처한 학생 수 감소 등 공통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과 전남 두 지역의 학생이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영양도서관, 학교도서관과 협력 사업 운영

일월초등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행사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일월초등학교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5일에는 가족공예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딱지동전지갑 만들기'와 6일에 샌드아트 동화 애니메이션 '내 이름은 제동크' 공연을 진행했다.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두 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동화를 통한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공연은 인성 동화를 주제로 하여 학생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손수진 관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호남(칠곡-해남) 교육 지도자 협의회 개최

영호남 협력과 상생의 교육 교류를 열다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목)~6일(금) 1박 2일 간, 칠곡 주요 교육시설 및 칠곡 일원에서 칠곡과 해남 지역 교육장 및 관내 교장단 100명이 참여하는 영호남(칠곡-해남) 교육 교류 활동을 펼쳤다.

2023년에 다시 시작된 영호남(칠곡-해남) 교육 교류 사업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 해남에서 칠곡과 해남지역 교육 지도자 100여명이 해남 주요 교육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 간 협력 학습, 교류 활동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번 하반기 교류를 위해 해남 교육 지도자 40명이 칠곡 지역을 방문하여 칠곡 교육을 소개하는 등 학교 간 교육 교류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하였다.

지난 5일(목) 열린 칠곡-해남 교육 지도자 협의회에는 칠곡-해남 교육지도자 100명이 각 지역의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이후 학교 간 교육 교류를 위한 열린 협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 지도자 협의회에는 김재욱 칠곡군수가 영호남의 뜻깊은 교육 상생의 장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 교육에 대한 애정을 적극 표현해 협의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최원아 교육장은 '영호남(칠곡-해남)의 교육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상생을 이루고,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하였다.

김동현/기자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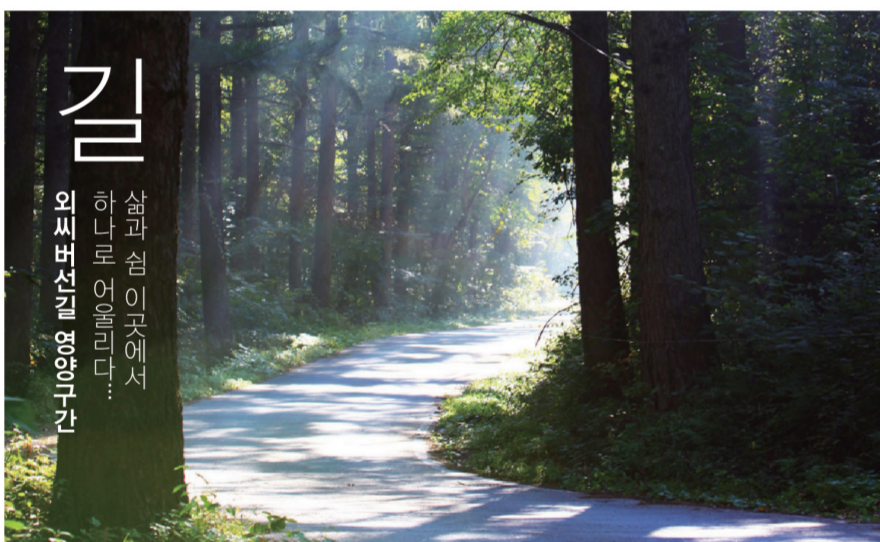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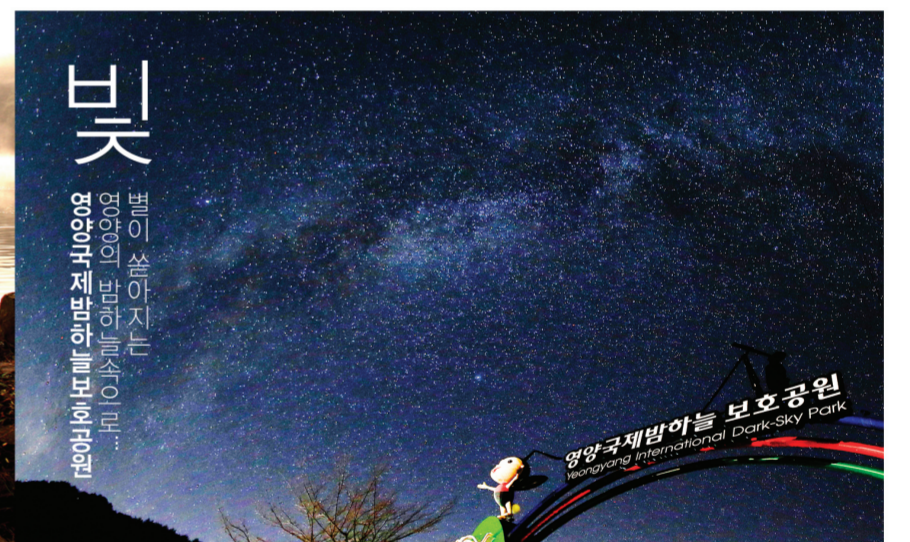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느끼기...
영양도 특별한 풍경이 있다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수놓아...
영양이 특별한 풍경이 있다



얼

시냇물의 대가
서늘한 영양나들이 풍경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다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역사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익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